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孫谷 李達

글_김정현



하대마을 들들이 있는 곳에서 200여미터만 더 올라가면

왼편 산언덕에 집 한 채가 외따로 서있다.

이 집터가 그 옛날 손곡 이달이 태어난 생가 터라고 한다.

월산 줄기가 서쪽으로 내려오며 마을을 포대기처럼 감싸고 있는데, 생가 터는 남향으로 양지바르게 앉아있다.

해발 394미터인 월산 정상은 생가 터에서 30여분이면 오를 수 있는 높이다.

홍성문화원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孫谷 李達

글_김정현



보개산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의미가 깊다.

보개산의 정기를 받은 주변마을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있다고 한다.

보개산에 뒤덮인 보물은, 바로 훌륭한 인물인 것이다.

월산과 보개산의 정기를 받고있는 하대 마을에서 손곡 이달이 태어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참으로 옛사람들의 풍수지리를 통한 예언 능력은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홍성문화원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 책을 펴내면서

손곡 이달은 우리고장 홍성 출신입니다.

하지만 홍성에는 그가 살았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홍주읍성 서문 부근에 서있는 손곡이달 시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곡 이달은 조선시대 삼당시인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의 글이 뛰어났음에도 출생이 서얼이라서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동가식서가숙하며 살았던 비운의 방랑시인이었습니다.

손곡 이달의 시와 삶의 흔적들은 옛사람들의 몇몇 문집에 기록되어 전합니다. 손곡 이달의 제자이며 홍길동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허균은, 스승 이달의 시문집 『손곡집』을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그야말로 허균은 손곡 이달을 후세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린 공로자입니다.

손곡 이달이 남겨놓은 300여 편의 한시와 옛사람들의 문집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글에 익숙한 세대들이 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계와, 그를 연구하는 글들도 대부분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발표한 논문들이어서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주 많이 늦기는 했지만, 홍성문화원에서는 2014년 향토문화발굴사업으로 손곡 이달을 선정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고장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을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허경진 교수님이 번역하여 중앙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국역 손곡집』이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논문과 번역자료를 통해서 옛 문헌의 기록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바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이와 같은 연구물들을 통해서 손곡 이달이 살았던 모습을 더듬어볼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감이 나도록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사진도 찍어 책에 함께 실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얼굴도 알 수 없는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손곡 이달을 연구한 여러 자료들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연구물들의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손곡 이달의 발자취들을 따라다니며 사진과 글로 책을 엮어주신 동화작가 김정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곡 이달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일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책을 받아보고

김정현 교장선생님의 원고를 받아보고, 홍성에 고향 선배 손곡 이달을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제가 평민사에서 『손곡 이달 시선』 번역본(1989년 초판, 1991년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첫 줄에 “나는 우리 나라 시인 가운데 손곡 이달과 석주 권필을 가장 좋아한다. 이달의 시가 따스하게 무르녹았다면, 권필의 시는 서늘하게 날이 섰다. 이달은 정감의 시인이고, 권필은 기백의 시인이다.”라고 감회를 썼는데, 저보다 더 이달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손곡 이달의 흔적이라도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몇 십 년 전에 홍성을 찾은 적이 있지만, 결국 아무런 자취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홍성 읍성 옆에 서 있는 손곡 이달 시비는 저의 은사 김동욱 교수님이 주도하여 세우셨고, 저의 지도교수 이가원 선생님이 손곡의 시를 번역하고 직접 쓰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이십여 명 성금을 모아 세웠기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이제 두 분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손곡의 고향에는 다른 흔적 없이 시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홍성 출신이신 김동욱 교수님 덕분에 고향에 시비를 세우게 되었지만, 인터넷에서 손곡 시비를 검색하면 언제나 원주 손곡리에 세워진 시비가 먼저 검색되고 더 많이 검색되어 아쉬웠습니다. 이제 김정현 선생님의 책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손곡의 고향이 홍성이었고, 서얼 출신이라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손곡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남긴 분은 그의 제자 허균인데,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의 제자 가운데 신평 이씨인 남촌(南村) 이거(李蘧, 1532~1608)라는 분이 초당의 조카딸과 혼인하면서 팔촌 되는 손곡 이달을 소개하여 허균의 작은형 허성과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바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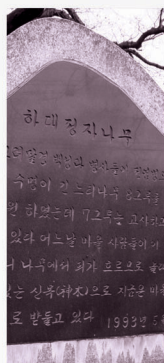
친구가 되었고, 허균에게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허균은 어려서부터 스승 이달과 오십년 동안 교류했기에 <손곡산인전>이라는 전기도 짓고, 『손곡집』도 편집 출판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곡 이달의 시에 관해 많은 기록을 남긴 분은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李睟光)인데, 허균의 손윗 동서인데다 홍주목사를 지냈으므로 이달에 관해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장가들 덕분에 이달의 작품과 생애가 후세에 알려졌다면, 현대에는 김정현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손곡의 작품과 생애가 널리 알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손곡 이달에 관한 기록이 어디엔가 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달의 흔적을 찾아서, 언젠가 더 많은 사실이 보완된 새로운 책이 홍성에서 나오게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 허 경 진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 책을 펴내면서

홍성문화원장 유환동

■ 책을 받아 보고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허경진

10 1. 이달의 고향 하대마을

- 10 ● 이달의 생애
- 14 ● 이달의 고향마을 대동촌(大洞村)
- 16 ● 마을을 지키주는 신목(神木)
- 18 ● 하대 마을에 남아있는 선돌과 들들
- 21 ● 이달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 33 ● 이달의 본관에 관하여

36 2. 이달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

- 36 ● 박순(朴淳)과 삼당시인(三唐詩人)
- 38 ● 이달의 평생지기 최경창과 백광훈
- 39 ● 비단 치마띠 노래를 고죽 사또께 바치다
- 41 ● 부벽루(浮碧樓) 시회
- 44 ● 고죽 최경창에게 보내는 이달의 시편들
- 47 ● 최경창과 함경도 기생 홍랑의 애뜻한 인연



- 48 ● 이달과 기생들과의 일화들
- 48 • 기생들의 공동묘지를 찾아서
- 50 • 이달이 사랑했던 기생을 위한 만시(晩詩)
- 51 • 기생 옥하선에게
- 52 ● 이달을 적선(謫仙)으로 대우한 양사언(楊士彦)
- 63 ● 이달의 시적 재능을 아낀 고경명(高敬命)
- 71 ● 이달을 보살펴준 손여성(孫汝誠)
- 82 ● 이달의 또다른 제자 유형(柳衍)

85 3. 이달을 세상에 알린 제자 허균(許筠)

- 87 ● 이달과 허균의 첫만남과 사제관계의 시작
- 92 ● 만만치 않았던 제자 허균
- 96 ● 허균의 문집 속에 기록된 스승 이달의 모습
- 96 •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듯이 생생한 시(詩)
- 100 • 참으로 불우한 사람의 시(詩)
- 103 ● 허균의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과 손곡집(孫谷集)
- 107 • 이달의 시를 후세에 알린 손곡집(孫谷集)
- 109 ● 이달이 꿈꿨던 세상, 홍길동전(洪吉童傳)

111 4. 장안의 종이값을 올린 광한루시회(廣寒樓詩會)

128 5. 이달의 가족사(家族史)와 시세계

- 128 ● 이달의 가족사
- 134 ● 이달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 141 ● 이달의 시 속에 나타난 고향 홍주
- 162 ● 가난, 방랑, 외로움, 이별을 노래한 시

170 6. 이달의 제2의 고향, 원주 손곡리(孫谷里)

- 170 ● 이달이 한동안 살았던 손곡리
- 187 ● 이달은 어떤 인연으로 손곡리에 살았을까?

189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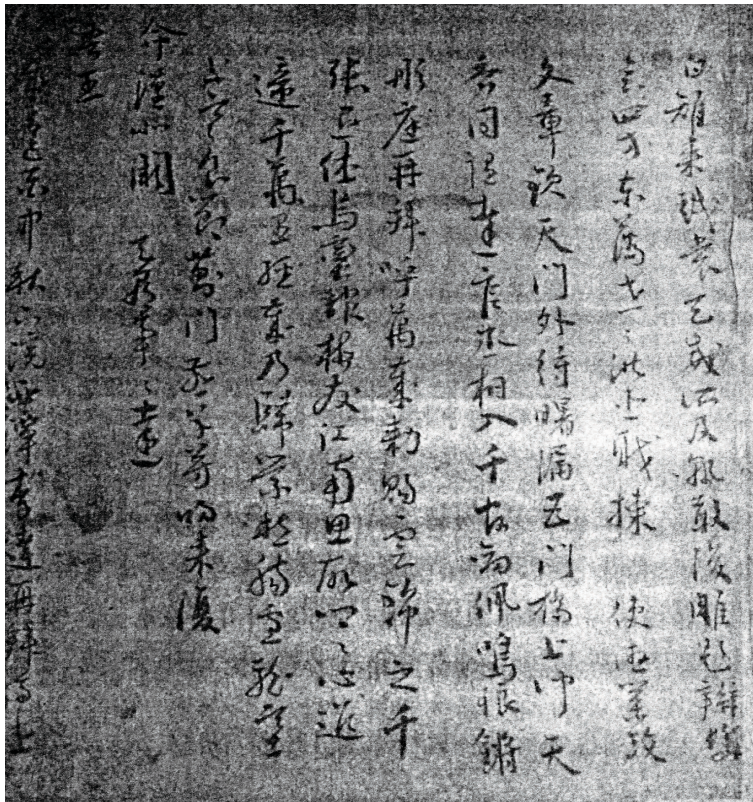
1. 이달의 고향 하대마을

● 이달의 생애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孫谷) 이달(李達).

그의 자는 익지(益之)이며 호는 손곡(孫谷) · 서담(西潭) · 동리(東里)이다.

홍주(지금의 홍성) 출신으로서 조선 중기의 유명한 시인이다.



■ 손곡 이달 친필(출처 : 허경진역, 국역손곡집, 원주사료총서 제5권)

樓見月明即有心要有情獨自隨君千里行長相思
淚縱橫

三五七言

金井桐玉蘊空遠天出明月西樓生夜風郎君擲向
長安道芳草年年恨不窮

孫谷佳

蘭雪軒詩集小引

閨房之秀擷英吐華亦天地山川之所鍾靈不容強亦不容遏
也漢曹大家成歌史以紹家聲唐徐賢妃諫征伐以動英主皆
丈夫所難能而一女子辯之良足千古矣即彤管遺編所載不
可縷數乃慧性靈襟不可泯滅則均焉即朝風咏月何可盡廢
以今觀於許氏蘭雪軒集又輒：乎塵埃之外秀而不靡冲而
有骨遊仙諸作更屬當家想其本質乃瓊成飛瓊之流亞偏讀
海邦去蓬壺瑤島不過隔衣帶水王樓一成舊著旋名斷行殘
墨皆成珠玉落在人間永光玄賞又豈叔真易安輩悲吟苦思
以寓其不平之哀而總為兒女子之喜笑聲哉許門多才
皆以文學重於東國以手足之親輯其稿之僅存者以傳予得
寫目軌題教語而歸之觀斯集當知予言之匪謬也

■ 손곡집과 난설한 시집 - 손곡집과 난설한집이 한권으로 묶여져서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허경진 교수 제공)

손곡 이달은 아버지 이수함(李秀咸)과 홍주관기 사이에서 태어난 것
으로 전해온다. 서얼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뛰어난 재주
가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한평생을 방랑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한때는 중인이나 서얼들도 임용이 가능한 한리학관(漢吏學官)으로
재임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야인으로 되돌아
가 자유분방하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하지만 가정사의 아
픔과 사회의 냉대와 한을 시로 승화시켜서 그의 주옥같은 시편과
이름이 후세까지 회자되고 있다.

조선후기 한시(漢詩) 작가들 중에서 당풍(唐風)으로 시를 지어 널리
알려진 세 사람을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부른다. 삼당시인이라는
별칭은, 그야말로 당나라의 시풍을 익힌 시인 중에서도 최고 경지
에 이른 세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삼당시인의 주인공은 손곡(孫谷)

이달(李達) ·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이다.

삼당시인 중에서 손곡 이달은,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여류시인 허난설헌 남매에게 시를 가르쳤던 스승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일본 국회도서관에는 손곡집과 난설헌 시집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누군가 책을 편집하면서 허난설헌이 손곡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었다고 추측된다.

손곡 이달의 평생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달의 제자로 잘 알려진 허균이 평소에 기억하고 있던 이달의 시들을 모아 문집으로 남겼는데, 그 문집 이름이 『손곡집(孫谷集)』이다. 손곡집에 실려있는 300여 편의 시들과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실려있는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과 「학산초담(鶴山樵談)」외 몇몇 옛 사람들의 문집들을 통해서 손곡의 시 일부와 살아생전 일화들이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손곡 이달의 생몰연대 역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과 남아있는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생몰연대를 추측할 뿐이다.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추측한 그의 출생연대는 1539년 전후로 보고 있으며, 사망연대는 1612년 전후로 보고 있다. 이 추측의 근거는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양경우(梁慶遇)의 시문집 『제호시화(濟湖詩話)』와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서 찾을 수 있다.

양경우의 시문집 제호시화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내가 기유년(己酉年)에 종사관(從事官)으로 재상 서경(西卿) 유근(柳根)을 따라 용만(龍灣)으로 향하는 길에 행차가 평양에 이르렀다. 그때

손곡(孫谷) 이달(李達)이 70세가 넘어 성안에서 객으로 거처하고 있었다.
(余於己酉年 以從事官 隨柳相西垞 向龍灣 行至平壤 李孫谷達 年踰七十 客居城中…….)

위 기록에서 기유년은 1609년(광해군 1)이다. 1609년에 70세가 넘었으므로 그의 탄생년도는 최소한도 1539년 전후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경술년(1610년) 10월에는 허균이 스승 이달에게 자신의 글을 평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다.

웅께서는 본디 저의 소부(騷賦)가 완려(婉麗)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스스로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저의 문장은 근래에 진보했는데 웅께서 오히려 알아주지 못하므로, 삼가 한정록서(閑情錄序)·박씨산장(朴氏山莊)·왕충이기(王塚二紀)·십이론(十二論)·이절도뇌(李節度誄)·관묘비(關廟碑)·남궁생전(南宮生傳)·대힐자(對詰者)와 북귀부(北歸賦)·훼벽사(毀壁辭)를 한 통으로 만들어 변생(下生)에게 부쳐 보냅니다. 가르쳐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들 자료들을 살펴보면 최소한도 1610년 10월까지의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상의 기록 이외에도 일부 방증자료들을 참고하여, 근래의 연구자들은 이달의 생물연대를 1539년(중종 34) ~ 1612년(광해군 4)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달의 고향마을 대동촌(大洞村)

손곡 이달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에서 출생한 것으로 전해온다. 1696년(숙종 22)에 편찬된 옛 결성현지 고적조에,

대동촌은 결성현 동쪽 25리에 있는데, 문인 이달이 태어났다.

(大洞村在縣東二十五里文人李達生于此)

고 기록되어 있다.

■ 하대마을 전경(뒤쪽이 백월산)



결성현에서 동쪽 25리라면 현재의 홍성군 구항면에 해당되는 위치이며, 이 지역은 옛 결성현 소속이었다. 월산 서쪽 기슭 큰 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마을인데, 오래전부터 마을을 상대동 · 중대동 · 하대동 등으로 구분하여 불렀다. 결성현지에서 밝힌 대동촌이라는 이름과 동쪽 25리라는 거리가 일치한다.

1941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상대동 · 중대동 · 하대동 등이 합쳐져서,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가 되었다. 황곡리는 황곡마을과 하대마을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는 국도 29호선이 지나가는데, 국도 북쪽 월산 기슭아래가 하대마을이고, 국도 남쪽 보개산 아래가 황곡마을이다. 하대마을에는 ‘옥터’ ‘향교자리’ 등의 지명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옛날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읍에서 갈산과 서산으로 향하는 국도 29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홍성읍 외곽지역을 막 벗어나자마자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난다. 이 언덕 이름이 ‘하우고개’이다. 언덕이 높아서 말이나 소에서 내려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보통 ‘하고개’라고 부르는데, 고개를 많이 깎아내어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 국도 29호선이 지나가는 하고개 모습

•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神木)

홍성읍 서쪽 외곽에 있는 하고개를 넘어서자마자 오른쪽 샅길로 들어가면 손곡 이달이 태어났다는 하대마을이다.

하대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이 느티나무 이름이 ‘하대정자나무’이다. 느티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이 우람하고, 나무 밑동은 어른의 양팔로 세 아름은 되고도 남는다. 무성하게 늘어진 가지 아래로 드리운 그들은 마을사람 모두가 모여앉아도 남을만큼 널찍하다.

옛날에는 느티나무 부근에 여덟 그루가 함께 서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팔정주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꽤 오래전에 나머지 느티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느티나무에 재미있는 전설 하나가 전해온다.



■ 하대 정자나무 모습

전설에 의하면 하대정자나무는 고려 말에 결성현감이 심었다고 한다. 결성현감은 고을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튼튼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느티나무를 심어놓고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한다.

원래는 여덟 그루를 심었는데 중간에 일곱 그루가 죽고 한그루만 살아남은 것이다. 그 한 그루가 지금까지 튼실하게 살아있는 ‘하대정자나무’이다.

어느 해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을 사람들이 한 그루만 남아있는 느티나무를 베어내려 했다.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나무에서 시뻘건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부랴부랴 톱질을 멈추고 느티나무의 노여움을 풀



■ 하대정자나무 설명비



■ 출향인들이 세운 월산 추억 기념비

어주기 위한 제를 지내주었다.

이때부터 느티나무는 신성한 나무로서 신목(神木)으로 대접 받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守護木)으로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까지 싱싱함을 잃지 않고 있다.

• 하대마을에 남아있는 선돌과 들돌

하대정자나무 바로 아래쪽에는 출향인들이 세운 월산 추억 기념비가 있다. 어려서 뛰어놀던 월산과 고향 하대마을에 대한 추억을 담아 세운 비이다.

기념비에서 대여섯 걸음만 마을안쪽으로 걸어가면 고샅길 옆에 비석같은 모습으로 서있는 작은 바윗돌이 있다. 바윗돌의 높이는 약 1.2미터 정도 되는 규모이다. 바윗돌 앞에 제단을 만들어놓은 것

으로 보아 예삿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바윗돌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선돌이다.



■ 하대마을 선돌 모습

이 선돌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하대마을에 아주 힘센 장사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장사는 전염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다. 다행히도 장사는 병이 완쾌되어 집 밖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선돌을 들어보았다.

장사는 나막신을 신고 있었다. 장사의 뒷덜미 아래로 길게 늘어진 땡기머리가 나막신에 밟히는 바람에, 선돌을 들어 올리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선돌을 안고 뒤로 벌러덩 넘어진 장사는 그만 돌에 눌러 죽고 말았다.

그 후에 마을에서는 죽은 장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선돌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선돌 앞에서 마을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선돌에서 약 백여미터쯤 마을 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논둑 옆으로 커다란 바윗돌 하나가 놓여있다. 이 바윗돌은 힘센 장정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 하대마을 들돌 모습

둥근 모양의 돌이다. 이 바윗돌 이름이 들돌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들돌이 마을로 들어오는 전염병을 막아준다고 믿어왔다. 이 들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옆마을 청년들과 하대마을 청년들이 서로 큰 싸움을 벌였다. 해마다 정초에는 들돌을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어느날 하대마을의 장사가 들돌을 이곳에 옮겨놓은 이후로, 이웃 마을에는 이 들돌을 들어서 옮길만한 장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이 들돌은 지금 자리에 몇 백 년 동안 그대로 놓여있다고 한다.

하대 마을에서는 이 선돌과 들돌 앞에서 매년 음력 2월 1일 새벽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옛날에는 아침 무렵에 제사를 지냈는데 일제시대에 이 행사를 금지시켰다. 마을사람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새벽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지내고 있다. 이제는 민속박물관에나 가야 만나볼 수 있는 선돌과 들돌을, 하대마을에서는 옛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대마을은 마을 입구를 하대정자나무와 선돌과 들돌이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 마을 뒤쪽은 월산 줄기가 병풍처럼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하대마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변고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 국도 29호선을 달리며 바라보는 하대마을은 그림처럼 평화스럽기만 하다.



● 이달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하대마을 들들이 있는 곳에서 200여미터만 더 올라가면 왼편 산 언덕에 집 한 채가 외따로 서있다. 이 집터가 그 옛날 손곡 이달이 태어난 생가 터라고 한다. 월산 줄기가 서쪽으로 내려오며 마을을 포대기처럼 감싸고 있는데, 생가 터는 동남향으로 양지바르게 앉아있다.

해발 394미터인 월산 정상은 생가 터에서 30여분이면 오를 수 있는 높이다. 월산은 옛날부터 홍성읍과 구항면의 진산으로서, 지역사람들의 정신적인 구심적 역할을 해오는 산이다. 지금도 월산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당과 술한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 손곡 이달 생가 터







생가 터에서 월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살포쟁이 고개를 넘어가면 곧바로 홍성읍과 이어진다. 아마도 손곡 이달이 집과 홍성을 오갈 때면 이 살포쟁이 고개를 넘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가 터에서 마을 앞을 바라보면 국도 29 호선이 지나가고, 국도 건너편으로 야트막한 산줄기가 길게 지나간다. 국도 건너편으로 보이는 산 이름이 보개산(寶蓋山)이다. 마을에서 보개산까지의 거리는 코앞이나 마찬가지다.

보개산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의미가 깊다. 산 전체가 보물로 뒤덮여 있다는 뜻이란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이란 값나가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개산의 정기를 받은 주변마을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 월산 살포쟁이 고개 모습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있다고
한다. 보개산에 뒤
덮인 보물은, 바로
훌륭한 인물인 것
이다.



■ 하대마을에서 바라본 보개산 줄기 모습

월산과 보개산의
정기를 받고있는 하대 마을
에서 손곡 이달이 태어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참으로 옛사람들의 풍수지
리를 통한 예언 능력은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손곡 이달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가 고향인 하
대마을과 이웃에 있는 갈산
지역에 한 편씩 전해오고
있다. 또한 손곡 이달이 태
어날 때 이야기는 조선시대
심재가 지은 『송천필담(松泉筆
譚)』에도 실려있다.





첫 번째 이야기

월산 아래 살던 이침지(이달의 아버지)가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고 곤히 잠이 들었는데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깬 이침지는 새벽 일찍 나뭇짐을 지고 홍주읍성 저자거리로 나갔다. 저자거리에 나가서 한나절동안 앉아있었지만 나무는 팔리지 않았다. 피곤하여 지계에 기대고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때마침 주막집의 주모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서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서 저자거리로 내려오고 있었다. 청룡은 주모의 딸을 칭칭 감아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주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주모는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저자거리는 한산하고 한 청년이 나뭇짐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주모는 나무를 사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꿈생각을 하고 동침하였다. 이렇게 낳은 아이가 손곡 이달이다. 또한 손곡이 태어날 때 월산의 초목이 사흘동안이나 울었다.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문화』 제18집, '손곡 이달과 황곡리에 얹힌 설화', 2002년 12월호)

두 번째 이야기.

저, 홍성 후정 뒤 가서 보시면, 손곡 이달 비가 있어.

그 으른(어른)이 구항 양반이거든. (채록자 : 그 분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스승이잖유) 그렇지. 그 으른의 아버지가, 요, 구항서 살으셨거든. 구항 황곡리인가 오디서 살으셨넌디 가정이 어렵단 말여.

홍성으루 나무 장사를 늘 허리 땀겼단 말여. 식전이면 나무를 지구서 꼭 홍성을 땀기시넌디, 오편 집을 갖다 주느냐면, 홍성군에 다니는 아전 집예를 갖다 주거든. 아전 집예를 꼭 갖다 주넌디, 그 양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이여. 상중인디, 그러니께 삼 년간

내침을 안혀셨단 말여. 삼 년간 안방엘 들어가지를 안했어. 그러구서 탈복을 허구서 안방에 들어갔어. 그러자 인저 팔시를 받느겨.

“당신 삼 년간 안방에는 들어 오지두 않더니 뭐허러 들어 왔소?”

그런디 지난밤에 꿈을 기맥히게 잘 꾸었거든. 저녁이. 그러니께 사랑방이 있다가니 내침을 했넌디, 그 거절을 당했단 말여.

“에이, 빌어먹을 거, 부애(婬)가 나넌디 나무나 지구 간다.”구.

나무를 지구 가넌디, 아주 추울 땐디, 나무를 지구 가서 인저, 아전네 집이 가서 문 열어 달라구 소리를 질렀네. 그러니께 그 안에서 단속곳 바람으루 나오더니,

“아니, 이생님 오째 이렇게 일찍 오셨슈? 오니맨줄 알구 일찍 오셨슈?”

그러니께 닭울 때 쯤 갔던 모양이지.

“얼른 들어 오슈. 얼른 들어 오슈.”

그레서 들어갔거든. 들어가서 보니께 권이 얹어.

“권이 오디 갔소?”

허니께 원 있넌디 들어 갔다구 헌단 말여.

“원제 오나유?”

“메칠 걸릴 걸유.”

헌단 말여. 원내에 들어갔으니께 메칠 걸릴 게라구, 그러면서 따뜻한 아랫목으루 들어오라구, 이불을 걷으면서 들어오라는 겔쎄. 그레서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누워 있으니께 무슨 생각이 났었든지, 인저 부인두 그렇구. 부인두 들어오라구 혈 적이는 이상헌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 아닌가베? 그레 인저 거기서 정을 통했어.

정을 통해서 낳은게 손곡여, 이달. 그런디, 그 아전은 자기 아들 인줄 아네, 그런줄 안단 말여.

그런디 동헌에 들어갈라면 조금 컸으니께 꼭 따라 들어가거든.
일곱 살인가 여덟 살인가 그 손곡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을 땐디, 송
사가 들어왔단 말여. 송사가 들어 왔넌디, 베 올리는 돌것<sup>(베 짤 때 쓰는
십자 모양으로 된 도구)</sup>으루 메느리를 때렸넌디, 메느리가 죽었어. 그제
송사여. 그런디 수사를 해서 지은 죄를 뭐 헐려면 기록을 해야 헐텐
디, 이거 지금 원이 뭐라구 기록을 해야 헐지, 갈량을 못허졌단 말
여. 그런디 손곡 그 양반이 허는 얘기가,

“아버지, 뭐땀이 그러슈?”

손곡이 노다지^(늬) 원에 들락거리니께, 아무나 보구 아버지라구
그리는 겨.

“너는 알거 읏다. 알거 읏어.”

그러니께

“아뉴. 저 좀 일러주슈.”

자꾸 그런단 말여.

“시어머니가 베 이렇게 올리는 돌것으루다가 메느리를 때려서
메느리가 죽었단다. 그래서 그 돌것을 뭐라구 기록해야 헐지 물
려서 생각중이다.”

그러니께

“아, 십자 승마목이라구 그러시쥬.”

그런단 말여.^(채록자 : 뭐라구유?)

“아, 열 십자 아녀? 오를 승자, 삼 마자. 삼 올리는 나무여. 승마
목. 그렇잖여?”

그 소리를 듣고 원이 무릎을 탁 쳤단 말이지. 원이 그 소리를 듣
구서,

“너, 장래 큰 사람이 되겠다.”

그랬다넌디, 인저 참 증말루^(정말로) 한 자를 일러주면 열 자를 알
어 듣구 그러거든. 기막히게 재주가 좋아.



■ 전설 속에 등장하는 갈산 와룡천

그런디 그 전이 갈미(갈산) 김씨덜이, 저기 와룡천 물이 내려 오면, 시커먼 물이 내려 와서, 이게 손곡이 글씨 쓴 먹물이라구. 그거 붓가지구 돌팍 바윗돌이다가 쓰구 그랬다는 겨, 손곡이. 나중에는 저 김삿갓 마냥 떠돌다가 강원도 워디 가서 자리를 잡았던 모양여. 거기 가서 인저 참 홀룡헌 선생님 노릇을 허구, 그런디 그거, 손곡집 보면 글 읽는 것두 이런 사람 말허듯 했더라구.

* 채록 일시 : 1996. 8. 24.

* 구연자 : 이상엽(남, 78세, 농업, 한학 수학)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윤곡리

* 채록 장소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홍성문화원, 『홍성의 민담』, 1996년)



세 번째 이야기

이달의 자는 익지이고, 호는 손곡이다. 부정 수함의 서자로, 어머니는 홍주의 관기이다. 그가 태어날 때에 고을의 진산인 월산의 초목이 모두 말랐다. 원주 손곡에 와서 살았으므로, 손곡을 스스로 호로 삼았다. (李達, 字益之, 號蓀谷, 副正秀咸庶子, 母洪州官妓, 其生也邑鎮月山草木皆枯, 來居原主蓀谷, 因以自號.)

(심재, 『송천필담』)

이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달의 탄생배경은 사생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글재주가 뛰어나고 냇물이 먹물처럼 검게 흘러내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과, 태어날 때 백월산의 초목들이 마르고, 사흘 동안 울 정도로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암시도 담겨있다.

이상의 탄생 유래담에서 보듯이, 그는 숙명적으로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태어났다. 서열이라는 이유로 재주가 뛰어났음에도 널리 쓰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동가식서가속하며 살았다. 한 때는 강원도 손곡에서 살았다고 하



여, 그의 호도 손곡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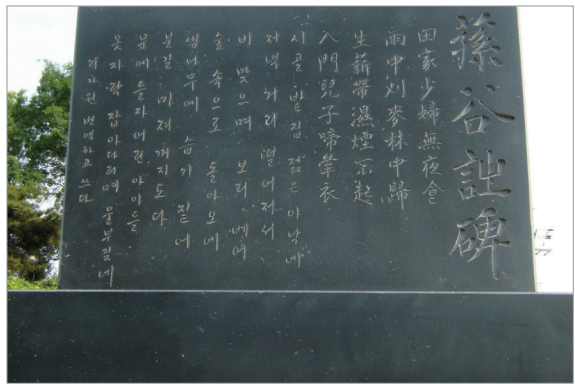
아쉽게도 이달이 태어난 홍성에는 그와 관련한 흔적이나 전하는 자료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결성현지 등 옛 문헌에 구항면 하대마을 출신이라는 내용, 1983년에 전국시가 비동호회에서 홍주읍성 서쪽 성벽 옆에 세운 손곡 이달 시비, 손곡 이달의 탄생과 관련한 설화 몇 편이, 그의 고향 홍성에 남아있는 흔적들이다.

다음은 홍주읍성 서문 부근에 서있는 손곡 이달 시비의 ‘예맥요’이다.

시골집의 젊은 아낙은
저녁거리가 없어서,
빗속에 나가 보리를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는 축축해서
불길도 일지 않는데,
문에 들어서니 어린애들은
옷자락을 잡으며 우는구나

刈麥謠

田家少婦無夜食 雨中刈麥林中歸
生薪帶濕煙不起 入門兒女啼牽衣



■ 손곡 이달 시비(홍주읍성 서문옆)



■ 손곡 이달 시비(홍주읍성 서문옆)

● 이달의 본관에 관하여

손곡 이달의 본관에 관하여 홍주이씨와 신평이씨 두 문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손곡 이달은 홍주이씨와 신평이씨 두 문중의 족보에 모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손곡 이달의 본관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손곡 이달의 제자인 허균이 1611년에 지은 책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는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 첫머리에는,

“李達, 字益之, 雙梅當李詹之後, 其母賤, 不能用於世…….”

라고 적혀있다. 이 글을 해석하면,

“이달(李達)의 자(字)는 익지(益之)이며 쌍매당(雙梅當) 이첨(李詹)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가 천했으므로 세상에 쓰일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허균이 1618년에 쓴 손곡집(孫谷集) 서문 끝머리에는,

“翁 姓李 名達 字益之 雙梅當之庶裔孫 孫谷 其自號也”

라고 하였다. 이 글을 해석하면

“옹의 성(姓)은 이(李)이며 이름은 달(達)이다. 자(字)는 익지(益之)이고 쌍매당 이첨의 먼 서출후손이다. 손곡(孫谷)은 그의 자호(自號)이다.”는 내용이다.

위 기록에 나오는 쌍매당 이첨은, 고려말과 조선초기(1345년~1405년)의 문신이며 신평인으로 알려졌다.

후대에 이달의 본관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허균이 쓴 위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왔다.

한편 1607년에 제208대 홍주목사를 지낸 이수광(李睟光)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손곡 이달을 홍주사람으로 소개했다.

“李達 洪州人 副正 李秀咸 蓄州妓所生者”

이라고 적힌 이 기록을 해석하면,

“이달은 홍주사람이다. 부정(副正) 이수함(李秀咸)과 고을의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다.”

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 나오는 부정 이수함은 홍주이씨 족보에 올라있는 이름이다. 여기에서 ‘홍주인(洪州人)’이라는 표현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

손곡 이달의 본관이 홍주이기에 ‘홍주’라고 썼다는 해석과, 과거에 실패한 홍주에 속한 지역이었으므로 ‘홍주실패’를 간단히 ‘홍주’라고 표현했다는 해석의 차이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8일자, 홍성지역에서 발간되는 홍성신문 사회면에는, 손곡 이달의 본관에 관한 논란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 문인 손곡 이달 기록 논란”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항면 황곡리 출신인 조선 중기의 문인 손곡(孫谷) 이달(李達, 1539 ~ 1612 또는 1618)선생의 기록과 본관을 두고 400년이 지난 지금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홍성소식 책자 8월호 ‘홍성의 위인’ 편에 손곡 이달 선생을 소개했다. 이 글에는 ‘손곡 이달은 고려의 유명한 문장가 쌍매당 이침의 후손으로’라는 표현이 실려있다. 홍주이씨 종친회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홍성군수를 면담하고 ‘이침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국역 고려사 열전>에는 ‘쌍매당 이침의 본관은 신평이고, 고려말 ~ 조선초의 문장가이며, 홍주사

람’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록이 손곡 이달의 제자인 허균이 지은 <손곡산인전>에 나오는 ‘손곡산인 이달의 자는 익지니, 쌍매당 이침의 후손’이라는 내용에 따라 옮겨 적으며 이 기록이 일반화 됐다. 구항면이 지난해 발간한 <구항면지>에도 ‘본관은 신평이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홍주이씨 종친회원인 이환세 홍성읍 구룡리 동구 이장은 “손곡 이달 선생은 엄연히 우리 족보에 수함의 자로 기록돼 있다. 신평이씨와의 소송에서 1심은 우리가 승소했고, 2심은 상대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된 일”이라며 “홍성군에서 발간한 책자에 홍성의 인물인 손곡 선생의 본관과 조상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손곡 이달과 관련, 홍주이씨 종친회의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양측에 족보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손곡 이달 선생이 신분제도가 엄격한 조선시대의 서얼로 태어나, 전국을 유랑하고 다니며 슬픈 생애를 살았기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양측이 제출한 족보와 근거자료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진 기자/ sj@hsnews.co.kr)

2. 이달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

이달은 조선조 짝 막힌 신분사회의 틀 속에서, 서얼출신이라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을 것은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빼어난 글 솜씨는 신분을 뛰어넘어 많은 문인들로부터 사랑과 찬사를 받았다.

그의 글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준 문인들이 있음으로 하여, 한평생을 방랑하면서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다. 신분을 뛰어넘어 글을 쓰는 문인으로서 동료의식을 갖고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달이 전국을 떠돌며 많은 시인묵객들과 교유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 박순(朴淳)과 삼당시인(三唐詩人)

박순(朴淳, 1523~158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충주이며 자는 화숙(和叔)이고 호는 사암(思菴)이다. 1553년(명종 8)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쳤으며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박순에 관한 『선조수정실록』 기록의 일부를 살펴보면,

박순은 문장에 있어서는 한(漢)이나 당(唐)나라의 격과 법도를 따르려 하였다. 더욱이 시에 뛰어나서 한시대의 시인 종주(宗主)가 되었다. 이른바 3당시인이라 칭찬받았던, 최경창·백광훈·이달 등은

모두 그의 문인이었으니, 이때부터 문체가 크게 변할 수 있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달을 비롯한 3당 시인들은 박순의 문인들이었다. 박순은 선조임금이 즉위한 이후, 한때 정계와 문단을 주도한 인물로서 3당 시인을 후원하였다. 1579년에 백광훈이 정릉 참봉으로 있었는데, 1580년에 그의 글 솜씨를 아껴서 예빈시 참봉 겸 주자소도감 감조관으로 옮겨주었다. 그 뒤로 3당 시인들은 정릉과 봉은사 일대에서 자주 만나 시를 짓고 시사(詩社)를 결성하였다.

박순과 최경창과 백광훈은 고향이 호남이고 이달의 고향은 호서이다. 아마도 이들 모두 호남과 호서지역 출신으로서, 옛 백제가 지배했던 동향이라는 지연도 작용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때 이달은 박순으로부터 충격적인 가르침을 받고 원주 손곡으로 돌아갔다. 박순이 말하기를,

“시의 도는 마땅히 당(唐)으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네. 소동파가 비록 호방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류로 떨어진 것일세.”

박순은 진지하게 말하면서 책시령 위에 꽃힌 책들을 뽑아주었다. 그 책들은 이태백의 악부(樂府)·가(歌)·음(吟) 등과 왕유·맹호연의 근체시 등이었다.

이달은 깜짝 놀라서 시의 바른 법도가 여기에 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앞서 배웠던 것들을 모두 내버리고, 옛날에 은거했던 손곡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달은 손곡의 옛집에 틀어박힌 채, 『문선(文選)』과 『이태백집』과 성당 십이가(十二家)의 글, 유우석, 위응물 및 양백점의 『당음(唐音)』 등을 가져다가 엮으려서 외웠다. 밤을 낮삼아 앉은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5년동안이나 계속했다.

손곡에 들어앉아 5년 동안 당시(唐詩)를 익히고 나오자, 삼당시인으로 함께 알려졌던 최경창과 백광훈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의 내용은 허균이 쓴 『손곡산인전』의 일부이다. 이달이 박순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듣고 나서, 5년여 동안을 두문불출하며 당시(唐詩) 배우기에 전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달의 시가 더욱 원숙해지고 돋보였던 것 같다.

한 때 홍주목사를 지냈던 이수광(李睟光)도 그의 문집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이달과 최경창을 거론하며 “최경창과 이달은 한 때 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시가 가장 당시(唐詩)에 가깝다.”고 하였다.

● 이달의 평생지기 최경창과 백광훈

조선시대 삼당시인으로서 고죽 최경창과 옥봉 백광훈은 손곡 이달과 평생을 가깝게 지냈다. 이달이 관련된 시회 등에는 최경창과 백광훈이 거의 모두 등장한다.

삼당시인 중에서 벼슬다운 벼슬을 한 사람은 고죽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이다. 그는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에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이달은 신분의 제약 때문에 원래부터 벼슬길에 나갈 수 없는 몸이었고,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은 28세 때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산수를 방랑하며 시와 서도를 즐겼다. 백광훈의 벼슬은 선릉참봉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비단 치마띠 노래를 고죽 사또께 바치다

최경창이 지역의 책임자로 나갈 때마다 이달과 백광훈은 함께 어울리며 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최경창은 호방한 기질과 풍류객다운 풍모가 물씬 풍기는 인물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이달과의 일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최경창이 1576년에 영광군수로 부임하여 갔을 때였다. 이듬해에 이달이 벗 최경창을 따라가서 상당기간 신세를 지고 있었다. 최경창은 이달에게 숙식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기생을 옆에 두고 시중을 들도록 했다.

이달이 기생과 함께 시장구경을 나갔다가 중국에서 온 비단장수를 만났다. 동행한 기생은 비단장수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그 비단을 사서 치마 띠 장신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야 빈털터리일 뿐이고, 몸에 지닌 값나가는 물건 또한 있을 리 없었다.

이달은 이때의 그 심경을 최경창에게 시로 지어서 보냈다.

비단 치마띠 노래를 고죽 사또께 바치다 錦帶曲贈孤竹使君

중국 상인이 강남시장에서 비단을 팔고 있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며 비치니 자주 빛 연기가 피어나네
아름다운 여인이 그걸 가져다 치마 띠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 속을 아무리 뒤져도 값어치 나갈 돈이 없구려

商胡賣錦江南市 朝日照之生紫煙
佳人正慾作裙帶 手深粧匳無直錢

이달의 시를 받아든 최경창의 대답이 가히 일품이었다.

“손곡의 시는 한 글자에 천금씩이나 가니, 어찌 감히 비용을 아끼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 즉시 한 글자마다 비단 석 필씩 값을 쳐서 원하는 돈을 보내주었다.

정말로 이달을 아끼고 사랑하는 풍류객다운 넓은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화이다. 이후 이달의 시가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 일화는 허균의 『학산초담』에 기록되어 전한다.

한편 유몽인(柳夢寅)이 쓴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한다.

이달의 시를 받아본 최경창이 답장하기를,

“이 시의 값을 논하자면 어찌 천금만 되겠는가? 하지만 피폐한 고을이라 돈이 넉넉지 못하여 마음에 들게 줄 수가 없구료.”

그리고는 시 한 구(句)에 백미 10석을 쳐서 모두 40석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허경진, 「국역 손곡집 부록 3」 ‘손곡 이달의 생애’)

어우야담을 쓴 유몽인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이다.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於于)이다. 1589년(선조 22)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과 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 야담 문학의 시원을 열었으며 수필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책이기도 하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도 위 시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달이 일찍이 호남에 객으로서 유람하고 다닐 때, 어떤 상인이 비단을 팔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 그것을 갖고자 하나, 이달 자신에게는 치러줄 돈이 없었다. 드디어 시를 지어 고을의 수령 최경창에게 올려 말하기를, “오랑캐 장수가 강남의 시장에서 비단을 파는데, 아침 해가 그것을 비치니 붉은 연기가 나는 듯하다. 아름다운 여인이 치마와 띠를 만들고 싶어 하나, 손으로 화장대의 서랍을 더듬어 보니 값은 치를 돈이 없다네” 라고 하였다. 최경창이 크게 즐거워하여 그 값을 후하게 주었다. 이달이 이 일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는 세상에서佳作(佳作)으로 칭찬한다. 그러나 상호(商胡) 두 글자는 온당하지 않다.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 권13, 남만성 역)

• 부벽루(浮碧樓) 시회

고죽 최경창이 1580년에 평양 서윤(庶尹)으로 있을 때였다. 이달이 최경창을 따라 평양에 머물렀다. 최경창은 이달을 부벽루(浮碧樓)에 머무르게 하고 기녀 십 여 명을 보내어 잘 보살피도록 하였다. 기녀들은 시와 노래를 잘 부르고 거문고를 잘 켜는 이름 있는 여인들이었다.

최경창은 대동찰방으로 재임하던 학사 서익(徐益)과 함께 매일 이달을 찾아갔다. 해가 질 때면 공무를 끝내고 최경창과 서익이 부벽루로 찾아가서 함께 어울렸다. 매일 밤늦도록 술잔을 돌리고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 최경창의 임기가 끝나서 조정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런 모임은 매일 이어졌다.

이 당시 부벽루 시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양경우의 『제호시화』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전한다.

부벽루 벽에는 정지상(鄭知常)의 칠언절구 시 ‘雨歇長堤草色多’가 걸려 있었다.

비 그친 긴 독엔 풀빛이 푸르네
임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리도다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다 마르리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물결 더하거늘

雨渴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이 시는 옛날부터 절창으로 알려져서 많은이의 칭찬을 받았다.

하루는 최경창이 술에 취해서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우리 세 사람이 매일 부벽루에서 시를 지었잖소. 이제는 산·강·고기·새 등을 모두 읊어서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을 것 같소. 그러니 이제는 시의 제목을 하나 정해서 한 절구씩 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소.”

듣고 있던 서익이 맞장구를 쳤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그렇다면 제목을 ‘채련곡(採蓮曲)’으로 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서경창이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저 벽에 걸린 정지상의 시를 운(韻)자로 삼으면 좋겠소.”

하였다.

곧바로 최경창·서익·이달 세 사람은 붓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

제일 먼저 최경창이 자신의 시를 읽었고, 그다음은 서익이 자신이 지은 시를 읽었다. 맨 마지막으로 이달이 시를 읽었다.

채련곡 - 대동강 누선의 시에 차운하다 采蓮曲 次大同樓船韻

연잎은 들쭉날쭉 연밥도 많은데
연꽃 속에 서로 섞여서 여인들이 노래 부르네
들어올 때에는 황당 어귀에서 만나자 했기에
힘들여 배를 움직이며 물결 거슬러 올라오네

蓮葉參差蓮子多 蓮花相間女娘歌
歸時約伴橫塘口 辛苦移舟逆上波

마지막 이달의 시를 듣고 난 최경창과 서익은 이달의 시를 제일로 삼았다. 하지만 이달은 최경창과 서익의 시가 자신의 시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이달을 대우하기 위한 마음 씀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일화는 평양에서 만난 이달이 양경우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양경우는 이들 세 명이 부벽루 시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의 문집 제호시화에 기록으로 남겼다.

위 시에 대한 평은 이수광의 문집 지봉유설에도 나온다. 지봉유설에는 위 시의 제목이 ‘패강사차운(貝江詞次韻)’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수광은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이달은 홍주(洪州) 사람이니, 부정(副正) 이수함(李秀咸)이 고을의 기생을 축첩(蓄妾)하여 낳은 자이다. 그의 시는 한때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자주 외게 되었다. (중략) ‘횡당(橫塘)’은 지명이니, ‘패강(貝江)’에 사용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끝 글귀는 아마 두보(杜甫)의 시 ‘마을 배가 시내를 거슬러 올라간다(村船逆上溪)’라는 말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파(波)’라는 글자는 적당하지 않다.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 권9. 남만성 역)

• 고죽 최경창에게 보내는 이달의 시편들

이달은 고죽 최경창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의탁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달의 최경창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들은 다음과 같다.

고죽에게 부치다 寄孤竹

동성에서 까마득히 서성을 바라보며
두 곳의 정을 몇 번이나 그리워했던가
내일 서울을 떠나 강 길을 거슬러 가면
자갈 모래에 붉은 잎새 가을소리 더하리라
東城迢遞望西城 幾度想思兩地情
明日離京沂江路 磧沙紅葉盡秋聲

고죽의 산장을 찾아와서 尋崔孤竹坡山莊

여러 달 만나지 못했기에
오늘 기쁘게 찾아왔네
농가는 나무 아래에 있고
오이덩굴이 가을 숲에 걸려있네
주인은 참으로 탈없이 지낸다며
가난을 마음에 꺼리지 않네

즐거운 낮빛으로 프락 풀 위에 앉아
나를 위해 거문고를 뜯어주네
거문고 다하면 다시 헤어져야 하니
슬픔만 서러움만 가슴에 가득해라

累月抱際曠 及此喜相尋
田廬樹木下 瓜蔓懸秋林
主人固無恙 貧窶不憂心
怡然坐庭草 爲我奏鳴琴
琴盡卽還別 悵悵悵彌襟

남쪽 고을에서 고죽 사포에게 보이다 南州 示孤竹使君

마을은 큰길로 이어지고
창 열고 들판 보니 아득하구나
돌아갈 마음 커도 의지할 곳 없어
방초만 날마다 우거지네
바다가 가까워 모래 독기에 잠겼고
밀물이 들어오면 물가 길은 진흙일세
이따금 벽 위의 시구를 보니
반나마 병중에 지은 것일세

曲巷連官道 開窓野望米
歸心浩無托 芳草日萋萋
海近沈沙瘴 潮生長渚泥
時看壁上句 太半病中題

호숫가 절에서 스님이 시축에 있는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를 보고 서글픈 마음에 시를 지어주다
湖寺 見僧軸有 崔白詩 愴懷有贈

성을 나오고 강물을 건너
젊을 적엔 자주 오갔지
언제나 최·백 그대들과 함께
절간에서 시짓는 재주를 시험했지
옛친구들은 모두 죽고
흐르는 세월은 차례를 재촉하는데
기둥에 오래 기대어 생각하노라니
서산의 해가 생대를 내려가누나

出郭渡江少 水年多往來
每携崔白輩 僧院課詩才
舊友凋零盡 流年次第催
沈吟倚柱久 西日下生臺

고죽의 시골집을 바라보다 望孤竹村莊
멀리 시골집 바라보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해
다섯해 된 무덤은 가시나무로 덮였네
서주 문밖에선 양담(羊曇)이 취했었고
시 산양(山陽)에 피리듣는 사람이 있었지.

遙望村莊淚滿巾 五年墳樹蔽荆榛
西州門外羊曇醉 更有山陽笛裏人

※ 이 시는 최경창의 옛집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며 지은 시이다.

최경창은 1583년에 45세로 일찍 세상 떠나서 경기도 파주에 묻혔다. 최경창이 세상 떠난 지 5년 후에 지었으므로 1588년에 지은 시로 보여진다.

• 최경창과 함경도 기생 홍랑의 애틋한 인연

이달을 아끼고 보살펴주던 최경창은 함경도 기생 홍랑과의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유명하다. 홍랑은 조선시대 황진이와 매창과 함께 3대 기녀로 꼽히는 기생이었다.

최경창과 홍랑의 인연은 1573년에 병마절도사의 보좌관인 북도평사로 부임하면서 맺어졌다. 이 때 최경창은 시를 잘 짓는 홍랑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뜻이 통하며 깊은 연인사이로 빠져들었다. 임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홍랑이 지어주었다는 시도 유명하다. ‘뿔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하는 시이다.

최경창은 후에 홍랑을 서울로 데려왔다가 파직 당했다. 그 당시에 함경도와 평안도 주민들은 도성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북방 지역 사람을 도성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유였다. 이후 최경창은 변방 지역을 전전하였고, 1583년에 방어사 종사관을 제수 받고 상경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홍랑은 최경창을 향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 죽었다. 최경창이 사망한 후에 묘 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에는 최경창의 유고를 잘 간직하였다가 유족에게 전했으며, 그 덕으로 최경창의 주옥같은 시편들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경창을 향한 홍랑의 일편단심은 죽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경창의 후손들은 그녀의 정절과 사랑을 높이 기려서 조상으로 대우하고 있다. 홍랑의 묘도 최경창 부부묘 바로 아래쪽에 모셨다. 홍랑이 살아서는 기생신분으로 주변의 천시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최경창의 어엿한 연인으로서 많은 이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이달과 기생들과의 일화들

손곡 이달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기생들과 남긴 일화들도 상당수가 된다. 여러 자료들에 남아있는 일화들은 다음과 같다.

• 기생들의 공동묘지를 찾아서

이달이 평양을 유람할 때 겪었던 기생과 관련한 신비스런 이야기가 전한다. 이 일화는 이덕무가 지은 『청비록(淸脾錄)』에 기록되어 전한다. 청비록은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淸莊館全書)』속에 들어있는 시문집이다.

이달이 평양을 유람하며 선연동을 찾은 일이 있었다. 선연동은 평양 북쪽에 있는데 기생들의 무덤이 총총하게 들어서있다고 한다. 때마침 산꽃은 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지고, 비구름이 한낮을 침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달은 선연동 무덤가를 거닐며 슬퍼하다가 시한 수를 읊었다.

기생들 공동모지를 찾아서

모란봉 밑에 있는 선연동에는
미인들 문혀있어 풀빛 언제나 봄 같구나
신선의 환술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옛날 가장 아름답던 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면만

牧丹峯下嬋娟洞 洞裏埋香草自春
若爲借得仙翁術 喚起當年第一人

이달은 시 한 수를 읊은 후에 여관으로 돌아왔다.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많은 기생들이 아름다운 옷을 예쁘게 입고 이달을 찾아왔다. 기생들은 부드럽고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 첩들은 바로 선연동 사람들입니다. 어제 좋은 시를 저희들에게 주시어 저희들의 유골이 빛났으므로 감사드립니다.”

때마침 어디선지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 꿈이었다.

이달은 이튿날 다시 선연동을 찾아갔다. 술과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주며 시를 한 수 지어 바쳤다.

내 시가 추생의 울과 같이
유곡에 봄이 다시 오게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혼들을 꿈속에 보니
*이부인을 다시 보는 듯 했네

* 마지막 절구에 나오는 이부인은 한무제(漢武帝)의 부인이다. 이부인은 미모가 천하일색이었으며 한무제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이부인이 일찍 죽자 무제는 그녀의 초상을 궁 안에 그려놓고 늘 그리워하였다. 때로는 이부인의 신

(神)을 데려오도록 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슬퍼한 적이 있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 이달이 사랑했던 기생을 위한 만시(輓詩)

만시(輓詩)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시이다. 만시의 대상은 주로 부모, 자녀, 남편, 부인, 형제, 벗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애인이나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시도 있다.

이달이 평양에서 객으로 지내며 정을 붙이며 지내던 기생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생이 그만 죽고 말았다. 그 기생은 평양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관장으로부터 매를 맞아 죽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역루(驛樓)에 모여 이달을 위로하며 만시를 지었다.

다음 시는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의 만시이다. 조희일이 종사관으로 평양에 가던 중에, 황해도 서흥도호부에 이르러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은 시이다. 이 시는 『죽음집(竹陰集)』에 실려있다.

別用他韻, 贈李學官達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하는 이 슬픔
한은 선연동(嬋妍洞)의 여린 풀 속으로 스미네
나는 듯하던 걸음걸이 사라져 패물소리도 끊어지고
사그라진 꽃이 말이 없으니 새벽바람만 미친 듯 부네
미인의 원한 맺힌 피는 봄풀로 자라나고
신녀(神女)의 아침 구름은 골짜기에 가득하구나
가냘픈 구곡간장은 애시당초 끊어졌건만
역이름은 무슨 일로 또 용천(龍泉)이란 말인가

生離死別兩茫然 恨入嬋妍洞裏線
 飛步無蹤仙佩冷 殘花不語曉風顛
 美人冤血成春艸 神女朝雲銷峽天
 九曲柔腸元自斷 驛名何事又*龍泉

*용천은 서흥의 역명으로 관아 서쪽 10리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 사신들이 머무는 용천관(龍泉館)이 있었다. 지명이 용천과 같이 죽음을 상징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님이 죽어 애시당초 구곡간장이 끊어질 듯 한데 역조차 황천이라 하니 더욱 슬픔을 자아낸다는 뜻이다.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76면에서 옮겨옴

• 기생 옥하선에게

이달의 기생과 관련한 일화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또 있다. 옥하선(玉河仙)이라는 기생과 관련한 일화이다. 옥하선이라는 기생은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이달의 시 한편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한다.

기생 옥하선에게

머리는 빗자루 같고 빗깍은 은처럼 희끗한 게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니 마치 귀신 같구나
 비단옷을 온몸에 걸쳤어도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
 끝내 곽충륵에게나 시집가게 되리라

頭如刷帚色如銀 默坐無言似鬼神
 遍體綺羅疑借著 只宜終嫁郭忠輪

위 시에서 마지막 구에 나오는 곽충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지만 장님이었다고 한다. 이달이 옥하선에게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시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그 서운함이 상당했던 것 같다. 혹시 기녀 옥하선이 돈 없는 이달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언행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장님 곽충륜에게나 시 집갈 것이라는 악담을 해댄 것을 보면 참으로 심하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좌우지간 이달의 이 시 한편으로 인하여 그 뒤로 옥하선의 집에는 찾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유명한 시인의 시 한편으로 인하여 기생집 앞에 손님이 들끓게 할 수도 있고,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게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허균의 학산초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허균은 이 시를 말하면서 “어찌 기생 뿐이겠는가? 무릇 선비도 또한 이와 같다.”고 했다.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32권 『청비록(淸脾錄)』 제1권, 허경진역)

● 이달을 적선(謫仙)으로 대우한 양사언(楊士彦)

하늘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되만 높다 하더라

泰山雖高是亦山 登登不已有何難
世人不肯勞身力 只道山高不可攀

위 시는 양사언이 지은 태산가(泰山歌)이다.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던 글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국민시나 마찬가지다.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은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강원도 북쪽 지역 회양으로 나갈 때는 금강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자청했으며 이곳에서 금강산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다.

말년에는 강원도 고성외의 구선봉 아래에 비래정(飛來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풍류를 벗삼으며 은거했다. 1584년에 68세로 타계했으며, 살아생전에는 허봉·이달 등과도 많은 교유를 하였다.

봉래 양사언과 손곡 이달의 이야기가, 허균의 문집 『학산초담』에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다.

봉래 양사언이 강릉부사로 재임할 적에, 손곡 이달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며 함께 지냈다. 양사언은 귀한 손님의 정도를 뛰어 넘어서 빈사(賓師)의 예로 이달을 대우하였다. 두 사람 모두 풍류를 즐겼으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경치 좋은 주변 산천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달은 원래 기질이 호방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자유분방하고 툭툭 튀는 언행들은 격식을 따지는 주변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이러쿵저러쿵 이달을 비방하고 시샘하는 말들이 양사언과 주변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곤 했다.

허균은 그 상황을 학산초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익지(李益之)는 젊어서 화류계(花柳界)에 출입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재주를 시샘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였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잘 대우하지 않고 부인과의 예의도 닦지 않았다.’ 하며 비난해 마지않았다.

어디 그 뿐이라.

이달을 비방하는 말들은 허균의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다. 양사언과 허균의 아버지 허엽(許曄)은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그들은 1546년(명종 1) 식년 문과에 함께 합격하였고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웠다. 아마도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허엽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 이달의 사생활을 허엽의 입을 통해 양사언에게 전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심사였을 것이다.

허균은 아버지 허엽과 양사언의 친분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나 이야기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들었을 것이다. 허엽과 양사언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학산초답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양봉래(楊蓬萊)가 강릉 부사로 부임했을 때, 그(이달)를 빈사(賓師)의 예로 대우하자, 시샘하는 자들이 선대부(허엽)에게 근거없는 말을 하여 선대부께서 편지로 익지를 사절토록 권하였다.

허엽의 편지를 받은 양봉래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오동꽃은 밤비에 지고, 바닷가 나무는 봄구름 속에 사라진다.
“桐花夜雨落海樹春雲空”라고 시를 짓는 이달(李達)을 만약 소홀히 대접한다면, 진왕(陳王)이 응창(應瑒)과 유정(劉楨)을 잃을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허엽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양사언에게 이달을 소홀히 대접하지 말도록 권했던 것 같다. 또 다르게는 허엽이 양사언에게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이달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권했다는 해석도 있다.

좌우지간 양사언은 응창과 유정을 빗대어서 허엽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 답장 속에 등장하는 응창과 유정은 중국 후한 말기인 건안 시대에 유명했던 문인들을 말한다. 건양시대에 ‘건안 7자(建安七子)’라고 하여 일곱 명의 대표적인 문인이 있었다. 공융(孔融)·왕찬(王粲)·유정(劉楨)·완우(阮瑀)·서간(徐幹)·진림(陳琳)·응창(應瑒) 등을 말한다. 응창과 유정은 건안 7자 속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그 후에 양사언이 이달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이달은 평생을 방랑하며 눈칫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다. 이달의 몸에 배인 눈치 보는 실력은 거의 달인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주인의 표정과 어투 하나에서도 그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달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양사언의 곁을 떠날 작정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작별을 고했다.

부사 양사언에게 올리다 上楊明府

나그네가 길 떠나고 머무는 것은
집주인의 얼굴빛에 달려 있다오
오늘 아침에 보니 환한 빛이 없어졌길래

오래지 않아 푸른 산을 생각해냈지
 노 나라에서는 거위를 대접했고
 남쪽에서 돌아오던 날 마원은 울무를 가져왔었네
 가을바람이 부니 떠돌이 소진은
 또 나서노라, 목릉의 관문을

行子去留際 主人眉睫間
 今朝失黃氣 舊宇憶青山
 魯國爰鵬鸞 南征薏苡還
 秋風蘇季子 又出穆陵關

이 시를 읽은 양사언은 깜짝 놀라고 뉘우치며 이달에 대한 대우를 예전과 똑같이 하였다고 한다. 위 시에 관하여 홍주목사를 지낸 이수광은 그의 문집 지봉유설에서 ‘이 시는 아름답다’는 평을 남겼다.

이달은 양사언이 안변부사 시절에도 따라가서 신세를 졌다. 이달이 한양을 떠나와서 회양을 거쳐 잠깐 머문 후에 안변으로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절이 한겨울이라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곧장 떠날 수가 없었다. 빨리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써서 보냈다.

회양부에서 양봉래에게 편지를 부치다 推陽府 簡寄楊蓬萊

시월에 한양을 떠나
 지금 강원도에 있네
 강원도엔 눈비가 많아
 내일 출발이 늦어질까 걱정이라네

서로 그림지만 몇 겹이나 막혔기에
하룻밤 사이에 사람만 늙게 하네

十月發漢陽 今在交州道
交州雨雪多 明發恐不早
相思隔重關 一夜令人老

양사언은 객사에 머물던 이달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 ‘送李蓀谷’이란 제목의 송별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가을바람 비는 쓸쓸하게 내리는데
까마귀 우는 밤에 녹기금을 타네
야윈 말이 울면서 낡은 역마을을 떠나
반공 구름 속으로 가로지른 시내를 오르네

秋風淅淅雨淒淒 綠綺弄絃鳥夜啼
羸馬蕭蕭發古驛 半天雲裏上璜溪 『봉래시집』권1

양사언의 금강산 사랑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사언은 금강산이 봉래산(蓬萊山)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금강산이 매우 험난하여 아무도 오르지 못한 최고 높은 비로봉을 처음 등정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또한 양사언은 내금강 만폭동(萬瀑洞)의 너럭바위에 ‘蓬萊楓嶽 元化洞天(봉래풍악 원화동천)’이라는 글귀를 새겨놓았다. 그 후에 이 글씨는 금강산의 명물이 되었으며, 순례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봉래산’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갔다.

양사언이 강릉부사에서 회양부사로 전임될 때가, 1568년이였다. 양사언이 회양부사 시절에 금강산을 자주 유람했는데, 이달과 차식(車軾)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을 유람하며 양사언이 이달과 차식을 위해 지은 시가 전한다. 차식을 위한 시로는 ‘降仙亭待車紫洞’이라는 글이 전하고 있다.

또한 양사언이 이달을 위해 지은 시는 ‘降仙亭戲爲留眼蓀谷李謫仙’이다. 이 시가 양사언의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실려있다.

시의 제목에서 양사언은 이달을 ‘손곡이적선(蓀谷李謫仙)’이라고 표현하였다.

적선이란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다. 훌륭한 대시인(大詩人)에게나 붙일 수 있는 표현이고,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李白)에게 붙였던 표현이다. 하늘에서 별을 받고 인간세계로 내려온 선인(仙人)을 말하기도 하다.

화려한 날개옷 입고 청도에 살던 신선이
푸른바다로 삼천년 귀양 왔구나
오늘 아침에 봉소곡을 배워서 부니
만리 넓은 하늘에 붉은 노을 올라탔네

霓裳羽衣清都仙 謫下碧海三千年
今朝學吹鳳簫曲 萬里長空乘紫煙 『봉래시집』 권1

양사언은 이 시에서 이달을 삼천 년 동안 인간세상에 귀양온 신선이라고 하였다. 이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읽혀지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이달 역시도 양사언을 신선으로 높여 생각하는 마찬가지였다.

양사언이 1584년 68세의 일기로 타계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달은 ‘양봉래의 죽음에 곡하다(哭楊蓬萊)’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 보냈다.

인간으로 신선 되신 줄 알았으니
부질없이 슬퍼하며 수건을 적실 필요없네
동쪽바다 봉래로 돌아가는 길에는
벽도화 천 그루가 활짝 핀 봄이겠지

知是人間尸解身 不須凋悵恨沾巾
蓬萊海上東歸路 疑有碧桃千樹春

이달이 생각하기에 양사언은 본래 인간세상에 잠시 내려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머물던 인간세상에서 신선세계인 봉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므로 수건을 적시며 슬피 울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달의 입장에서야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살아생전에 친형제 이상으로 자신을 살피주었던 양사언이 아니던가. 양사언이 근무하던 임지마다 찾아다니며 술한 신세를 졌고, 이런저런 흠잡는 말들이 들려와도 포근하게 감싸주던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 아니던가.

언제나 든든하게 의지하던 양사언이 세상을 떠났으니, 회오리처럼 일어나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울며 불며 통곡하는 슬픔보다도 눈물을 참아내는 속울음이 애간장을 끓여내듯 더 큰 슬픔이었을 것이다. 이달은 양사언의 죽음 앞에서 북받치는 슬픔을 애써 감추면서 떠나왔던 신선세계로 돌아갔다는 위안을 삼고 있었을 뿐이다.

양사언은 살아생전에 어찌하여 이달을 것처럼 아끼고 보살필까.

첫째는 시를 사랑하는 문인으로서 이달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마도 양사언 자신의 처지와 이달의 처지가 비슷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양사언의 출생담이 다음과 같이 전설처럼 전해온다.

양사언의 아버지가 전라도 영광 사포로 발령받아 부임하는 중이었다. 어느 시골길을 지날 즈음에 점심무렵이 되었으므로 이곳저곳 마땅한 집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한창 농번기라서 찾아가는 집집마다 사람이 없었다.

마침 어느 한 농가에 들어갔다. 그 집에는 어른이 없고 나이 앓된 소녀 한 명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점심을 부탁하려 하는데, 들에 나간 어른을 불러올 수 없겠느냐?”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들에 나가신 부모님은 지금 농사일로 바빠서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점심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소녀는 당돌하면서도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허허, 어린 네가 점심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나?”

“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성껏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저 참으로 고마운 일로구나.”

신관 사포는 앓된 소녀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포일행을 대하는 공손하고도 흐트러짐 없는 언행이 어찌나 예의 바른지 대견하기만 했다.

소녀는 신관사포 일행을 방으로 안내한 후에 바쁘게 점심을 지었

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소녀는 점심을 정성껏 지어 올렸다. 그 음식솜씨 또한 아주 정갈하고 맛이 일품이었다.

점심을 잘 얻어먹은 신관사또는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었다. 도포 소매 속에 들어있는 청색과 홍색의 부채 두 자루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냥 주기가 멋쩍어서 농담 삼아서 한마디 건넸다.

“이 청선(靑扇)과 홍선(紅扇)은 너에게 예단으로 주는 것이니라. 잘 간직하거라.”

이 말에 소녀는 깜짝 놀라서 안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에 급히 붉은 보자기를 두 손에 받쳐 들고 나왔다. 공손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보자기를 받쳐 든 두 손만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부채 두 자루를 받는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냐?”

신관사또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소녀는 머리를 숙인 채 공손히 대답했다.

“예단이라 함은 결혼 전에 주는 예물 아니옵니까? 이 귀중한 예물을 어찌 맨손으로 받겠습니까?”

소녀는 공손히 대답하며 보자기 위해 부채를 내려놓으라는 표정을 지었다. 신관사또는 소녀가 받쳐 든 붉은 보자기 위에 부채를 내려놓고 길을 떠났다.

그 뒤로 세월이 한참 흘렀다. 신관사또는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을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노인이 사또를 뵈기 위해 찾아왔다.

노인은 사또 앞에 다소곳하게 서서 말문을 열었다.

“몇 년 전 영광사또로 부임하시던 중에, 어느 시골 농가에 들러 점심을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점심을 지어올린 소녀에

게 예단이라는 말씀과 함께 부채 두 자루를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너무 언행이 바르고 고마워서 보답으로 부채를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대답을 듣고 나서 안색이 밝아졌다. 이제야 궁금하던 숙제를 풀었다는 듯 안도하는 얼굴빛이었다.

“네에, 그러셨군요. 그 여식은 과년한 제 딸년입니다. 그 이후로 시집을 보내려 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여식에게서 사또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뇌리 속에는 여러해 전에 어느 시골 농가에서 있었던 점심무렵의 일들이 영화필름처럼 스르스르 스쳐지나갔다.

마침 그 무렵에 사또는 본부인과 사별하여 홀아비 신세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 소녀를 정식 후실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 옛된 소녀가 바로 양사언의 어머니이다.

사또의 후실로 들어온 소녀는 아들 두 명을 낳았다. 첫째는 양사언이고 둘째는 양사기이다. 또 사또는 본부인과 사이에서 이미 양사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후실로 들어온 양사언의 어머니는 삼형제를 정성껏 가르치고 키워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들로 만들었다.

하지만 양사언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이 후처의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일이 항상 걱정이었다. 그리하여 남편이 죽을 때 함께 따라서 자결하므로 열녀의 길을 택했고, 죽음으로 아들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온다.



양사언 삼형제의 성공은 어머니의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덕분이
었다. 그들은 문장에도 뛰어나서, 중국의 소식·소순·소철 삼형제
와 비교되곤 했다. 또한 양사언은 붓글씨에도 뛰어나서 추사 김정
희와 만호 한석봉과 함께 조선의 삼대 명필로도 이름을 날렸다.

● 이달의 시적 재능을 아낀 고경명(高敬命)

고경명(1533~1592)의 본관은 장흥이며 자는 이순(耳順)이고 호는 제봉
(濟峰)·태헌(苔軒)이다. 그는 20세에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고, 1558년

■ 금산 칠백의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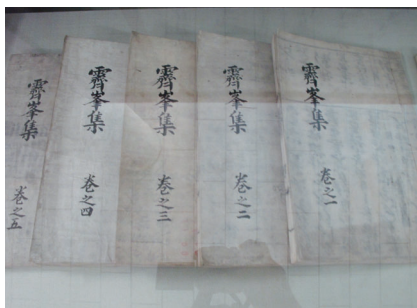


■ 칠백의충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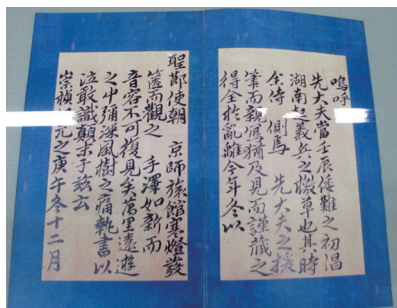
(명종 13) 문과에 장원급제한 준재이며 시문(詩文)에 능했다.

그는 1591년 동래부사를 끝으로 고향에서 은거하던 중에 임진왜란을 만났다. 임진왜란 때 60세의 노령으로 7천여 명의 의병군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일본군과 싸웠다. 금산 눈벌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아들과 수백 명 의병들과 함께 순국하였다.

고경명은 충남 금산의 칠백의충에 모셔져 있다. 칠백의충 기념관에는 고경명의 시문집 『제봉집(霽峰集)』과 의병을 모아 출전하면서 말에서 쫓다는 「마상격문(馬上檄文)」등이 전시되어 있다. 마상격문은 각 도의 관원과 군인과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깨



■ 제봉집



■ 고경명의 마상 격문(칠백의총 기념관 소장)

우기 위한 내용이다.

고경명이 1582년 서산군수를 지낼 때에 손곡 이달과 함께 보냈던 일화가 전한다. 이 일화는 양경우(梁慶遇)가 지은 『제호시화(霽湖詩話)』에 기록되어 있다.

제호시화를 지은 양경우는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으로 추대된 고경명을 모시고 군막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시를 아끼고 좋아하는 고경명이 시문에 뛰어난 양경우를 아껴서 곁에 두었던 것이다. 이때 담양에서 완산까지 가는 도중에 여가가 생기면 함께 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때로는 군막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많은 대화 도중에 이달의 됴됨이와 시에 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어느날 고경명이 양경우에게 말하기를,

“손곡 이달의 시는 매우 훌륭하여, 이 세상에는 그와 짝할 자가 드물다.”

고 하였다. 이에 양경우가 대답하기를,

“손곡의 시는 만당(晩唐)에서 나온지라, 비록 일편 일구는 읊을만 하지만, 어찌 어르신께서 지은 우아하고 훌륭한 시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경명은 이달에 관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어찌 그 우열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칠언율시(七言律詩)나 배율(排律)을 짓는 데는 내가 이달에게 양보하지 않겠네. 하지만 오언율시(五言律詩)나 절구(絕句)를 짓는 데는 내가 이달을 따라갈 수 없네. 지난날 내가 서산(瑞山) 수령이었을 때, 이달을 객관으로 맞이하여 여러 달 동안 그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네. 매번 절구를 지을 때면 감히 송인체(宋人體)로는 그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없었으니, 진(眞)인 듯 가(假)인 듯 진실로 가히 부끄러웠었네.”

고경명은 진심으로 이달의 시적 재능을 칭찬하고 아끼는 말을 했다.

양경우는 이 당시의 대화를 통해서 고경명의 넉넉한 인품을 새삼 느꼈다. 어떤 시인들은 남의 시적 재능을 우습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고경명은 이달을 자신의 오른 쪽에 둘 정도로 재능을 아끼고 두둔하는 것이었다. 고경명이야말로 인품이 고매하고 후덕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느꼈다.

고경명은 서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이달을 가까이에 두고 따뜻하게 대우했다. 잠자리와 음식과 생활도구 등을 조정에서 파견되는 관원에 못지않게 대우하고 배려했다.

이런 사실들은 곧바로 한양 등지로 퍼져나갔다. 고경명을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편지들이 속속 날아들었다.

“지금 조정에서는 자네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비난의 말들이 많다네. 필시 자네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네.”

그뿐만이 아니었다. 편지 내용 속에는 이달의 사생활까지 들춰내

면서 깎아내리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경명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혹시나 이달의 귀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무척 조심하였다. 그 뒤로 이런 편지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비난하는 말들도 가라앉았다.

세월이 흐르고 고경명의 관직이 바뀌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예전에 편지를 보내고 책망하던 친구들이 이달의 이야기를 물었다. 친구들이 묻기를,

“이달을 옆에 두고 함께 지낸다고 걱정하는 말들이 많았다네. 그 것이 정말인가?”

“당신들이 소문에 들은 바 그대로일세.”

고경명이 대답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고경명은 그 모습들을 보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으니 들어들 보게. 허억봉의 천한 것을 논한다면 그는 관노요. 그런데도 젖대를 잘 붙어, 연유(宴遊) 때면 때면 그를 초청해서 비단자리에 앉히오. 이달은 비록 외가(外家)가 없지만 그 부친은 사대부니, 관노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또한 멀지 않겠소? 젖대를 잘 분다는 것 때문에 비단자리에 맞아들여 그가 관노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면서, 이달이 지니고 있는 세상에 드문 재주를 사랑하여 비어있는 객관(客館)에 두고, 해변가의 진미로 먹이고 한가히 노는 한 계집으로 모시게 하여 그 객간(客間)을 즐기게 한다고 한들 무엇이 잘못이요?”

고경명의 진지한 대답을 듣고 나자, 그를 책망하던 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도 이치가 있소”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고경명은 이처럼 자신의 주관이 뚜렷했고 인품이 넉넉했다. 이달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감싸 안으며 시적 재능을 높이 사랑했던 것이다.

이달이 고경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었던 시가 전한다.



*태현의 시에 차운하다 謹次苔軒韻

넘실거리는 바다 서쪽가에 소금밭이 드러나고
 신기루 연기 흠비가 아득하게 맞닿았네
 관창(官倉)에서는 공문을 보내 소금세를 거두고
 수자리 병사는 성가퀴에 올라 엄하게 야경을 도네
 상자 속에 남은 글은 좀벌레 먹이가 되고
 갑 속에 커다란 칼 어장이 빛나는데
 원금(冤禽)은 떠나는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해
 청명 절기를 보내며 먼 고향을 그리워 하네

漲海西邊斥鹵荒 蜃烟蠻雨接微茫
 官倉出帖收鹽稅 戍客嚴更上女牆
 篋裡遺編資蟲蝕 匣中雄劍煥魚腸
 冤禽不解離人意 節過清明憶楚鄉

*태현은 고경명의 호임

■ 이달이 묵었던 서산 객사 모습



● 이달을 보살펴준 손여성(孫汝誠)

손곡 이달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도움을 받으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그중에도 이달의 시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여럿 있다. 이달의 오랜 친구 중에는 천안군수와 남원부사를 지냈던 손여성(孫汝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손여성의 생몰연대는 불명확하다. 다만 1561년(명종 16)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자는 극일(克一)이고 호는 용담(龍潭)이다.

1577년에 이달이 서울로 향하다가 중간에서 병이 들었다. 손여성이 천안군수로 재임하면서 몸이 아픈 이달을 보살펴준 적이 있었다.

아래 시는 이달이 손여성에게 보낸 시이다. 오래된 친구 손여성을 믿고 여관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영성연각에 머물면서 손여성에 자신의 나그네 심경을 시로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몸이 아프고 쓸쓸한 마음이 잔뜩 배어있는 시들이다. 영성은 천안의 옛이름이다.

이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이달과 손여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목에 보이는 손사군(孫使君)은 천안군수로 재임하던 당시의 사또 손여성을 말한다.

병들어 천안군수 손사군을 그리워하며 病悔寧城倅 孫使君

근력이 튼튼치 못한 게 슬퍼

아득히 병든 뒤에 시름하네

남을 사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하니

나그네로 다락에 오르기 싫어졌네

먼 산은 저녁이라 아지랑이 질고
고목은 가을이라 서늘한 기운 생기네
길이 다하니 지기를 믿어
여관에 억지로 머물러 있소

筋力嗟無健 悠悠病後愁
倩人纔倚杖 爲客倦登樓
嵐重遙山夕 涼生古木秋
途窮賴知己 賓館強淹留

병으로 영성 연각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지어보이다
滯病寧城蓮閣示主人

새벽노을 나무를 감싸고 달은 막 기우는데
병든 나그네 가을 만나 갑절이나 집이 그림네
서글피 난간에 기대어도 사람은 보지 않고
땅 가득 차가운 이슬에 연꽃도 젖었네

曙霞籠樹月初斜 客病逢秋倍憶家
悵悵倚闌人不見 滿池涼露濕荷花

병들어 머물며 영성 못가 나무에 쓰다 病滯 題寧城池樹

호남에서 머물다가 다시 호서로 오니
돌아갈 길 천 산이 꿈에 또한 아득하네
요즘 모습은 시름 속에 병든 나그네
해 지난 소식 들으니 가난한 처에게 부끄럽네
관하의 행색은 시초(詩草)나 보며



■ 천안삼거리 옛 주막 모습

못가에서 맑은 가을에 약제(藥題)를 점검하니
저녁이 다하도록 안부 묻는 사람도 없어
뜨락 나무에 맺힌 찬 이슬을 건디지 못하겠네

湖南留滯又湖西 歸路天山夢亦迷
近日形容愁病旅 經年消息愧貧妻
關河行色看詩草 池院秋晴檢藥題
盡夕無人來問我 不堪庭樹露淒淒

이달이 손여성에게 신세를 지며 잠시 머물던 천안은 우리나라 삼남대로의 분기점이다. 이런 지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천안삼거리’는 옛날부터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유명하다.



■ 천안삼거리 공원 모습

서울에서 내려오는 큰 길은 천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 길은 청주를 거쳐 문경새재로 통하는 큰 길이며, 또 한 길은 공주를 거쳐 논산·전주·광주·순천·여수·목포 등으로 통하는 큰 길이다.

천안삼거리는 임지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거쳐가던 길이기도 하며, 힘없는 선비나 민초들이 잠시 쉬었다 가던 장소였다. 그야말로 천안삼거리는 옛날부터 만남과 어울림 그리고 아쉬운 이별의 장소였던 것이다.

이달은 천안에 머물며 사람들이 연락부절로 오가는 천안삼거리를 거닐었을 것이다. 때로는 이곳 객주에서 술을 마시며 구름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위 시들은 대부분 객지에서 겪는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더욱 짙은 느낌이 든다.

한편 197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의 노랫말도 천안삼거리가 배경이라고 한다. 인생은 나그네길이고 인생은 별거숭이라는 노랫말이, 일평생을 떠돌이 생활로 일관했던 이달의 일생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숙생의 노래비가 천안삼거리공원에 서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별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없이 흘러서 간다

천안에는 이달이 머물던 당시의 옛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다만 화축관(華祝館)이라 부르던 옛 건물의 문루가 한 채 남아있다.

이곳은 영·호남의 관문이어서 역대 왕들이 온양온천 나들이를 할 때 임시거처로 사용하던 화축관(華祝館)이 있었다. 화축관의 문 역할을 하던 영남루(永南樓)가 천안삼거리 공원 내에 있다. 원래는 천안중앙초등학교 입구 쪽에 서있던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천안군수를 지내던 손여성이 1568년에 남원부사로 승진하였다. 이때 이달도 함께 따라간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시는 이달이 남원에 도착하여 부사로 재임하는 손여성에게 쓴 것이다.

이달은 이 시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드러내놓고 있다. 그만큼 이달과 손여성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손여성이 남원부사였을 적에, 이달을 비롯한 유명한 시인들이 모여서 광한루시회를 열었던 일하는, 장안의 종이가 품절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 하숙생 시비 모습



남원에 이르러 부사에게 지어보이다 到帶方府 示府伯

동쪽 땅에 있던 가난한 살림 그만두고
남쪽 고을까지 멀리 노닐러 왔소
봄 그늘이 들녘 숲에 드리우고
저녁 날빛은 성루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나서려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고
먹고 살기나 하려 해도 좋은 생각이 없대오
그 누가 내게 한 말 술을 보내와
고향 떠난 이 시름을 풀게 할 수 있을런지

■ 영남루 모습





東土辭貧業 南鄉作遠遊
 春陰垂野樹 暮色上城樓
 行世有難策 在生無善謨
 誰能一斗酒 送我寫離愁

위 시는 손곡에
 문혀 살던 이달이
 남원부사로 있는
 손여성을 찾아가서
 지은 시이다.

이 시에는 이달
 의 눈앞에 처한 어

려운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세상에 나가 자신의 뜻을 펼치
 고 싶어도 이런저런 어려움만 생기고, 당장 먹고살기 위한 방법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글프고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손여성에
 게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다음 시는 손여성의 타계 소식을 듣고 이달이 지은 시이다.
 손여성이 살아생전에 함께 어울리며 글짓던 추억을 회상하며 먼 세
 상으로 떠난 벚을 그리며 슬퍼하는 내용이다. 남원 광한루 시회 등
 을 회상하며 시를 지었다



■ 영남루 모습

손명부의 죽음을 슬퍼하다 挽孫明府

그대 명부가 되시고 나는 나그네였을 때
 오작교에 삼월 놀과 꽃이 피었었지
 남긴 글 점검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오늘 아침 처량하게 슬퍼 만가를 부르네

■ 오작교의 5월 모습



인간 세상에 부자의 정이 어찌 끝나랴만
해내의 친한 벗들 간담이 녹으려 하네
서울길은 가을빛 속에 문이 닫히고
뜨락 가득 누른 잎이 쓸쓸히 지네

君爲明府我爲客 三月煙花鳥鵲橋
點檢遺篇如昨日 淒涼哀挽卽今朝
人間父子情何極 海內朋親膽慾銷
京口閉門秋色裏 滿庭黃葉雨蕭蕭



● 이달의 또 다른 제자 유형(柳珩)

손곡 이달이 시를 가르친 제자는 세 명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제자는 허균(許筠, 1569~1618)이며 두 번째 제자는 이정(李挺, 1556~1609)이다. 이정은 목천현감을 지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가 유형(柳珩, 1566~1615)이다.

유형은 삼당시인이며 손곡과 절친한 고죽 최경창의 외 오촌 조카이다. 유형의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 김천일의 휘하에서 활약하였으며,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유형은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하며 노랑해전에 함께 참전하였다. 1601년에는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활약하였다.

특히 유형은 손곡이 죽은 뒤에 서담집(西潭集)을 간행하였다. 서담집의 발문은 지봉유설을 지은 이수광이 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담집은 전하지 않고 이수광의 발문만 전하고 있다.

서담(西潭)은 이달이 손곡이라는 호를 쓰기 전에 사용하던 호이다. 이달은 손곡에 살기 전에 서담에서도 잠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달의 말년에는 유형이 황해도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이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달이 유형에게 보낸 시가 여러 편 전한다.

유충용을 송별하다 送別柳攄戎

금하에 얼음 얼고 눈이 아득히 오는데

원수의 변방 순찰은 뜻밖의 일을 대비함일세
 어디에선가 호가 소리가 달빛 속에 우니
 *소선우 피리 소리를 북풍이 불어 보낸 게지

金河水合雪模糊 元師巡邊備不虞
 何處胡笳鳴月裏 北風吹送小單于

* 홍노의 작은 주장

병마절도사 유형에게 呈柳摠戎

만나볼 날 언젠가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두고 그리워해야겠소
 숲속에 남은 더위 물리고 나니
 프락 구석에서 가을벌레만 슬피 운다오
 오랜 병 끝에 가난만 언제나 남아
 집도 없는 살림살이 여러 해가 바뀌었소
 그대처럼 날 아끼는 분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 닳두리를 감히 하겠소.

相見自有日 相思知幾時
 樹間殘暑退 庭際候蟲悲
 久病貧常在 無家歲屢移
 非君愛我意 誰敢語支離

새하곡을 지어 병마절도사 유형에게 주다 塞下曲 贈柳摠戎

말 타고 숨어들어 오랑캐 장막 엿보니
 한나라 병사 깊이 들어 기연 땅을 지나가네

앞선 군사 밤사이에 음산 길을 잃어버려
큰 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과 안장 물어버리네

探騎潛窺虜帳邊 漢兵深入過祈連
前軍夜失陰山道 大雪須臾沒馬韉

하룻밤 된서리에 황야의 풀은 시들었는데
호강교위 싸우고 방금 돌아왔네
금창에 피 솟는데다 가을 기운을 만나니
고향 바라보며 슬피 울다 갑옷채로 누웠네

一夜繁霜磧草腓 護羌校尉戰新歸
金瘡血逆逢秋氣 哭望南雲臥鐵衣

위극 새하곡은 변방의 괴로움이나 서글픔을 그리는 ‘악부’의 노래라고 한다. 당나라 때에 ‘출새곡(出塞曲)’ ‘입새곡(入塞曲)’ 등의 변형으로 많이 지어졌다고 한다.

유충융에게 지어 바치다 奉呈柳摠戎

호절(虎節)의 소식을 못 들은지 오래니
변성의 소식이 드물게 왔소
북의 기러기 봄이라 다 돌아가는데
어느 곳에 글 전할지 알 수가 없네

虎節音容別久 邊城消息來疏
北雁春歸欲盡 不知何處通書

3. 이달을 세상에 알린 제자 허균(許筠)

만약에 허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손곡 이달이 있었을까?

손곡 이달의 삶과 그의 시를 후세에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은 허균이다. 허균은 자신의 스승 이달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남겼다.

이달 또한 허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달이 허균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손곡집에 실려있다.

밤에 앉아서 허균에게 지어주다 夜坐 贈許端甫

나그네 시름은 가을을 맞아 더하고
고향 그리는 마음은 밤 되면서 더 깊어지네
어둠 속의 귀뚜라미는 벽 가까이서 울고
차가운 이슬방울은 성긴 숲속으로 떨어지네
서울길에 나그네 된 지도 벌써 오래인데
산과 바다에 노닐자던 마음만은 아직도 잊을 수 없네
향을 사르며 앉아 잠도 이루지 못하노라니
궁궐의 물시계 소리 따라 밤만 더욱 깊어간다네

旅病逢秋甚 鄉愁到夜深
暗蛩啼近壁 涼露墮疎林
久作洛陽客 未忘江海心
焚香坐不寐 宮漏更沈沈

위 시는 이달이 서울에 머물며 지은 시이다.

가을밤은 깊어만 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그네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다. 촛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려보지만, 허전한 마음 속에는 고향생각만 가득 차오르고 있다. 문득 제자 허균과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달의 마음속에 꿈결처럼 떠올랐다. 둘이 함께 산과 바다로 어울려 다녀보자던 약속을 떠올리며 지은 시이리라.

신부단장을 재촉하며 장난삼아 교산에게 지어주다

催粧 戲贈蛟山

서궁의 작은딸 옥치랑께서

운우(雲雨) 노래를 흠쳐 베끼느라 동방을 닫았구나

엿보지 못하도록 다른사람 오는 걸 금하고

아름다운 화촉 밝혀 신선낭군을 기다리네

西宮季女玉卮娘 偷寫雲謠閉洞房

禁着外人窺不得 九華蓮燭待仙郎

허균은 1585년에 결혼하였다. 아마도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달도 결혼식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신부 단장을 재촉하며 장난삼아서 허균에게 지어준 시이다.

위 시에 나오는 ‘옥치랑’은 중국 도교 신화에 나오는 서왕모(西王母)의 셋째딸을 말한다. 이날 결혼하는 신부를 불사(不死)의 신녀(神女)인 서왕모의 아름다운 셋째딸에 비유한 것이다. 제자 허균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원하며 첫날밤의 분위기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 이달과 허균의 첫 만남과 사제관계의 시작

이달은 젊은 시절에 허균의 형인 허봉(許篈)과 가깝게 지냈다. 하루는 이달이 허봉의 집에 찾아간 일이 있었다. 이때 마침 허봉의 동생인 허균도 함께 있었다.

허균은 첫인상에 이달이 탐탁치 않았다. 이달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언행들이 사대부들의 품격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형님은 어째서 저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실까?”

허균은 속으로 형인 허봉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균은 겉눈질로 이달을 훑어보고는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이달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시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허균의 버릇없는 행동이 형인 허봉의 눈에 거슬린 것은 당연했다.

“자네는 시인이 이 자리에 와있는데 어찌 그리 경망스러운가? 일찍이 손곡 이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허균은 순간적으로 찔끔했다. 이달의 외모나 말투로 보아서 시한 구절 제대로 지을 사람같지 않았다. 그런데 허봉은 이달을 시인이라고 소개하며 깎듯하게 예우하는 것이었다.

‘.....?’

허균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었다.

“내가 이분께 청하여 자네를 위해 시 한편을 지어보도록 하겠네.”

허봉은 이달을 바라보며 즉시 운을 불렀다. 이달은 즉시 칠언절구 한 수를 지어보였다.

운을 부르다 呼韻

날이 맑아 굽은 난간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겹문까지 닫아걸고 시도 짓지 않네
담구석의 작은 매화가 바람에 다 떨어지니
봄빛은 살구꽃 가지 위로 옮겨 가는구나

曲闌晴日坐多時 閉却重門不賦詩
牆角小梅風落盡 春心移上杏花枝

허균은 깜짝 놀랐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이달의 겉모습을 보고 알아보았다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이다.

“정말로 제가 어른을 몰라 뵈고 너무 무례를 범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그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이 장면이 이달과 허균의 첫 만남이었다. 이때가 허균의 나이 14세 때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홍만종의 『소화시평』에 기록되어 있다.

풀려난 뒤에 하곡에게 부치다 放赦後 *寄荷谷

오색 난서(鸞書)를 붉은 구름에 내리셨으니
가을되며 유배객도 기러기 무리 되었네
살아 옛마을에 돌아오니 전원은 황폐해져
새 무덤에 눈물로 절하며 나무와 풀을 베네
외로운 달 새벽 산을 근심스레 바라보며
구천의 선루(仙瀛)는 꿈속에서 듣네
어느 때에야 삼청 길을 즐겁게 향해

다시 동향태일군을 받들런지요

五色鸞書下紫雲 秋來遷客雁爲群
生還古里田園廢 泣拜新阡草樹分
孤月曉山愁裏對 九天仙漏夢中聞
何時好向三清路 更奉*東皇太一君

*하곡은 허균의 형. 갑산으로 유배갔다가 1585년에 풀려남.

*동향태일군 : 도가의 신인데, 봄의 신을 말함.

1583년에 허봉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허봉은 2년 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백운산에 은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위 시는 허봉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당시에 이달이 지었던 것이다.

허균은 1585년에 결혼을 하였고 1586년 봄에는 백운산으로 들어가 허봉으로부터 고문을 배웠다. 허봉은 그후로 동생 허균을 위하여 유성룡으로부터 문장을 배우도록 하였고, 이달로부터는 시를 배우도록 하였다. 이달과 허균의 사제관계는 이때부터 정식으로 맺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허균의 가정은 당시 명문귀족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아버지 초당 허엽을 비롯하여 형인 허봉과 누나인 허난설헌 등 모두가 문장에도 뛰어났다. 특히 허봉은 이달과 친구이며, 동생인 허균과 허난설헌을 이달의 제자로 맺어주는데 앞장섰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서얼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출신 이달을 자식과 동생의 스승으로 삼은 그들의 생각은 참신하기 이를 데 없다. 허균 집안의 분위기는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다. 개혁적인 사상가 허균과 여류문

인 허난설헌이 배출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허균이 지은 『교산억기시(蛟山憶記詩)』 서문에는 자신이 손곡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젊었을 적에 시를 할 줄
알아서, 이손곡(李孫谷)에게 이백(李白)을 배웠고 당(唐) 및 한유(韓愈)·소식(蘇軾)을 중씨(仲氏, 허봉을 말함)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난리 속에서 비로소 두보(杜甫)를 익혀 부질없이 미약한 재주를 익히는데 힘을 쏟은 지도 한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소득으로 말하면 비록 옛사람의 영역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심정을 울조리고 물상을 아로새김에 있어서는 마음을 괴롭히고 힘을 쓴 것이 역시 알지는 않았다.

- 하략 -





● 만만치 않았던 제자 허균

그후 이달과 허균은 수시로 시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을 것이다. 때로는 서로 마주앉아서 시를 논했을 것이고, 때로는 편지로 주고 받으며 시와 문장에 관해 논했을 것이다.

하지만 허균은 그리 호락호락한 제자가 아니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스승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으며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어디라고 감히 자기의 입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스승의 가르침에 반박한단 말인가.

그런데 허균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정말로 허균은 자기의 주관이 확실한 제자였다. 스승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였다.

『성소부부고』 제 21권에는 허균이 손곡 이달에게 보냈던 편지 3편이 실려 있다.

첫 번째 편지는 기유년(1609년) 4월에 보낸 편지이다.

옹께서는 저의 근체시가 순숙(純熟)하고 엄진(嚴縝)하여 성당(盛唐)의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는 돌봐주지 않고, 오직 고시(古詩)만 좋다고 하여 남조(南朝)의 문장가인 안연지(顏延之)와 사영운(謝靈運)의 풍격이 있다고 하니, 이는 옹께서 고집만 부리시고 변할 줄을 모르신 것입니다.

고시(古詩)야 비록 예스러우나 이걸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옛것과 뽗진(逼眞)할 따름이니, 그렇게 중첩된 것을 어떻게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근체시는 비록 당시(唐詩)와 흡사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나

의 조화(造化)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시가 당시나 송시와 유사해질까 두려워하며,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니, 너무 건방진 생각이 아닐런지요.

이 편지내용으로 보면, 허균이 자신의 시를 이달에게 보내어 평을 부탁했던 것 같다. 이달이 평을 하여 답장으로 보냈는데 허균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다. 70세 가까운 자신의 스승인 이달을 향하여 ‘옹께서 고집만 부리시고 변할 줄을 모르신 것입니다.’ 또는 ‘나는 나의 시가 당시나 송시와 유사해질까 두려워하며,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정말로 허균은 만만한 제가가 아니었다. 기도 세고 자존심이나 주관이 뚜렷한 제자였다.

다음은 두 번째 편지이다. 이 역시도 같은 해 4월에 보냈다.

옹께서는 풍악기행시(楓岳紀行詩)를 가장 고고하다고 하여, 이 시집의 압권이 될 만 하다고 하셨더군요. 제가 스스로 해아려보건대, 그 부(賦)는 여행 중에 견문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천하의 문장가들인 진(晉)의 흥공(興公)이나 명원(明遠)과 더불어 천 년의 후세에 기예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조롱하는 말이라 생각되어 감히 사양합니다.

시왕동(十王洞)·망고대(望高臺)·박달곶(朴達串) 등 세편의 고시는 참으로 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너무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의 글은 부드러운 것이 병이고 강한 것은 병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 강한 느낌이 있더라도 방해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명(明)의 대문호인 우린(羽麟)이 이글을 보았다면 반드시 「명시산(明時刪)」 속에 넣었

을 것이니, 왕씨 집안의 자제들이 약간의 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강좌(江左)의 풍류에 방해되겠습니까.

허균은 가을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풍악기행(楓嶽紀行)’이라는 제
목으로 47편의 시를 지었다. 이 시들을 이달에게 보내어 평을 부
탁했다.

이달은 47편 중에서 17편에 간단간단한 평을 하였다. 그리고 전
체적인 평에는

47편이 모두 고아(古雅)하고 청려(淸麗)하여, 높은 것은 한위(漢魏)와
방불하고 낮은 것도 역시 개원(開元)·대력(大曆)의 사이에 끼일만하
니, 만계(晩季)에 이르러 이러한 정시(正始)의 음(音)이 있을 것은 생각지
도 못했다. 풍악(楓岳)의 담무갈(曇無竭)도 의당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허균은 스승 이달의 평이 탐탁치않다는 답장을 보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대평가를 사양하겠다고
답장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평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아니면 겸손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왕동(十王
洞)’·‘망고대(望高臺)’·‘박달곶(朴達串)’ 등 세편의 시에 대한 평은 수궁
하는 답장을 보냈다.

이달은 세편의 시에 대해 평하기를 ‘시왕백천동(十王百川洞)’은 “깊
고 굳세어 힘이 있으나 준어(峻語)가 운을 해쳤다.”고 하였다. ‘망고
대(望高臺)’에서 내려와 송라암(松蘿菴)에서 쉬다’라는 글의 평은, “내가
일찍이 이지역을 밟아본 적이 있는데 언제나 생각하면 발바닥이 간
지러워진다. 이 작품은 그 경계를 여지없이 발휘하여 규(規)에 방(方)

을 더할 수 없다. 다만 이 편이 극히 매서워 이 지역과 더불어 그 험려(險麗)를 다들만하나 약간 고아(古雅)가 모자란다 하겠다.”고 평하였다. ‘박달곶(朴達串)’을 평하기는, “이 경(境)에다 이 작품은 양절(兩絶)이라 이를만 하다. 나는 쓰고 싶어도 못 쓴 것을 남김없이 다 드러냈다.”고 했다.

다음은 세 번째 편지이다. 경술년(1610년) 10월에 보낸 편지이다.

옹께서는 본디 저의 소부(騷賦)가 안려(婉麗)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스스로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저의 문장은 근래에 진보했는데 옹께서 오히려 알아주지 못하므로, 삼가 한정록서(閑情錄序)·박씨산장(朴氏山莊)·왕총이기(王塚二紀)·십이론(十二論)·이절도녀(李節度誄)·관묘비(關廟碑)·남궁생전(南宮生傳)·대힐자(對詰者)와 북귀부(北歸賦)·훼벽사(毀壁辭)를 한 통 만들어 변생(卞生)에게 부쳐 보냅니다. 가르쳐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에 나오는 변생(卞生)은 허균의 제자인 듯하다. 허균은 제자인 변생을 시켜서 이달에게 자신의 편지와 글들을 보내어 평을 구했다. 이 당시에 허균은 서울에 있었고 이달은 평양에 있었다. 아마도 그동안 여러 번 서울과 평양 사이에 허균의 시와 이달의 평이 실린 편지들이 오고갔을 것이다.

이때 이달은 70이 넘은 나이였다. 이제는 허균의 시도 나름대로 일정수준에 오른 후였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사제지간의 글을 통한 소식이 계속 오고간 것이다. 이달과 허균이 소식을 주고받은 것은 이달의 말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여진다.

● 허균의 문집 속에 기록된 스승 이달의 모습

허균은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외가인 강릉으로 피난했다. 이듬해에 당대의 한시와 시인들을 비판한 『학산초담(鶴山樵談)』을 지었다.

학산초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가 실려 있고 허균의 평도 들어있다. 그중에는 이달의 시도 소개되고 있다. 특히 백성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한 이달의 시가 눈에 띈다. 허균은 이 시들을 소개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깜짝 놀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평을 남겼다. 허균이 24세 될 때까지 만났던 최고의 시인이 이달이었던 것이다.

•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듯이 생생한 시(詩)

보리 베는 노래 刈麥謠

시골집 젊은 아낙이 저녁거리가 없어서
빛속에 나가 보리를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는 축축해서 불길도 일지 않는데
문에 들어서니 어린애들은 옷자락을 잡으며 우는구나

田家少婦無夜食 雨中刈麥草間歸
生薪帶濕煙不起 入門兒女啼牽衣

* 성소부부고 국역집에는 시 제목이 ‘동산역시(洞山驛詩)’로 되어 있다.

이삭을 줍는 노래 拾穗謠

밭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시골아이들 말이
하나절 부지런했지만 한 바구니도 차지 못했다네
올해엔 벼를 베는 사람들 또한 교묘해져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청에 바친다더라

田間拾穗村童語 盡日東西不滿筐
今歲刈禾人亦巧 盡收遺穗上官倉

떠돌이 집안의 원망 移家怨

늙은이는 술을 지고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할미는 어린애 끌고 따라가질 못하는구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집 떠난 괴로움을 하소연하는데
여섯 해 동안 중군하느라고 애비 자식마저 헤어졌다네

老翁負鼎林間去 老婦携兒不得隨
逢人却說移家苦 六載從軍父子離

*성소부부고 국역집에는 시 제목이 ‘영남도중(嶺南道中)’으로 되어 있다.

허균은 위 시 세 편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익지(益之)의 시를 세상 사람들은 기생에 대한 실수 때문에 트집을 잡지만, 그의 ‘동산역시(洞山驛詩)’는 시골살림의 식량 팔리는 보릿고개 실정을 직접 보는듯하고, ‘이삭줍기노래[拾穗謠]’를 읽으면 흉년에 시골사람의 말을 마치 친히 하는 듯하고, ‘떠돌이 집안의 원망[移家怨]’이란 시를 읽으면, 부역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살 수 없어 이리저리 떠돌면서 우리 신고하는 모습이 한편에 갖추 실려 있다고 평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놀라 깨달아, 고달프고 병든 자를 어진 정치로 잘 살게 한다면, 그 교화에 도움됨이 어찌 적다 할 것인가.

문장을 지음이 세상 교화와 관계가 없다면 한갓 짓는데 그칠 뿐일 것이니, 이러한 작품이 어찌 소경의 시 외는 소리나 숨씨 있는 간언보다 낫지 않겠는가? 라는 평을 남겼다.

참으로 이 시들은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시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학정에 수탈당하며 유리질식하고 있는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들이 파편처럼 가슴속을 파고든다. 더욱이 이달 자신도 동가식서가숙하는 형편이어서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더 깊었을 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역시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가슴을 저미는 듯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무덤에 제사 지내고 祭塚謠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밭머리 풀섶에는 무덤이 늘어서 있네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 사이 길로 들어서자
해 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

白犬前行黃犬隨 野田草際塚纍纍
老翁祭罷田間道 日暮醉歸扶小兒

아마도 위 시의 내용으로 보아 노인은 아들을 전쟁 통에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낸 것 같다. 식구라고는 아들이 남기고 간 어린 손자 한 명 뿐이고 흰둥이와 누렁이가 함께 사는 듯하다.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일찍 죽었거나 병으로 일찍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의 제삿날을 맞이하여 손자와 함께 공동묘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 듯하다. 손자가 술에 취한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돌아오고 누렁이와 흰둥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오고 있다.

노인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의 고달프고 아픈 현실들이, 공동묘지라는 쓸쓸한 시골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읽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이처럼 마음 아픈 현실들은 어찌 이달이 살았던 그 시대만의 이야기일 것인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곳곳을 살펴보면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허균의 평에서 밝힌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한편 이수광은 앞에 소개한 ‘예맥요(刈麥謠)’와 ‘제총요(祭塚謠)’에 관하여 “당시(唐詩)에 매우 가까워서 좋다.”는 평을 했다.

위 시들은 예나 지금이나 문학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술한 갈등들이 생겨났다. 이런 갈등 속에서 문학인들은 ‘문학을 통한 현실 참여’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경우가 있다.

문학이 단순히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름답고 순수함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문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정치나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민중들의 참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손곡 이달의 위 시들을 읽고 있으면, 문학을 통한 현실참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 민중들의 힘든 모습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려낸 것이다.

비록 문학이 현실의 어두운 모습을 그려냈지만, 이는 단순히 그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현실을 극복하여 더욱 좋은 이상향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표현인 것이다.

민중들이 찾아 헤매는 희망적인 세상이 지금 현실에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세계가 있기를 갈구하고 찾아 헤매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본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학은 때때로 현실저항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참으로 불우한 사람의 시(詩)

허균은 이달의 또 다른 시들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불우한 사람의 시”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자신의 신분적인 한계로 인하여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평생을 방랑하며 살아가는 스승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는 꽃 落花

질은 꽃잎 여린 꽃잎 시름에 잠겨 있다가
좁은 뜨락으로 한꺼번에 다 떨어지네
푸른 이끼 위에 남아있는 것만 같지 못하니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로 흩날릴 걸세

惆悵深紅更淺紅 一時零落小庭中
不如留著青苔上 猶勝風吹西復東

한양에서 느낀바 있어 洛中有感 1

좋은 자리의 높은 벼슬아치들 곳곳에서 만나는데
수레는 물같이 흘러가고 말도 마치 용 같구나
장안의 길 위에서 헛되이 머리를 돌리니
그대의 집이 곁에 있지만 아홉 겹이나 닫혀 있더라

好爵高官處處逢 車如流水馬如龍
長安陌上空回首 咫尺君門隔九重

한양에서 느낀바 있어 洛中有感 2

성채는 들쭉날쭉 큰 집들이 잇달았는데
권문세가의 풍류소리가 구름과 연기를 흔드는구나
파릉교 위에서 나귀를 탄 나그네가
양양의 맹효연 혼자만은 아닐 것일세

城闕參差甲第連 五侯歌管沸雲煙

*灊陵橋上騎驢客 不獨襄陽孟浩然

*파릉교 : 장안 동쪽 파수(灊水) 위에 놓은 다리를 말함. 옛사람들이 이곳에서 버
들가지를 꺾어주며 작별하던 다리였다고 함.

용나루 渡龍津

가을 강물이 급하게 흘러 용나루로 내려가는데
나루의 관리가 배를 세우고는 비웃다가 다시 꾸짖네
서울에 드나들며 무슨 일을 했길래
십년이 넘어가도록 벼슬 한자리 얻지 못했나

秋江水急下龍津 津吏停舟笑更嗔

京洛旅游成底事 十年來往布衣人

위 시들에 대한 허균의 평은 다음과 같다.

이달이 일찍이 ‘낙화(落花)’라는 시를 지었는데, 어의가 함축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감회를 읊은 시라고 평하면서, ‘한양에서 느낀 바 있어[洛中有感]’ 두 수와 ‘용나루(渡龍津)’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시들을 소개하면서 “그 뜻이 서글프니 참으로 불우한 사람의 시”라는 평을 남겼다.

허균의 평이 아니더라도, 위 시들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달이 한양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을 심정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솟을대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선 거리를 지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했을 것이다. 평생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어 가슴속에 밀려오는 상실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더욱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낮익은 뱃사공의 비웃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허구헌 날 한양나들이를 하면 뭐할 것인가?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이달을 향해 면박까지 주는 뱃사공의 한마디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듯한 읊조림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허균의 평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서글프고 불우한 사람의 마음을 읊은 시인 것이다.

● 허균의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과 손곡집(孫谷集)

허균은 1611년에 자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를 편집했는데, 이 문집 8권 속에 이달의 일생을 전기문 형태로 서술한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이 실려있다.

이 글 속에는

첫째, 이달의 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가 쌍매당 이침의 후손이며 어머니가 천인이라는 사실과 원주 손곡에 살았던 내용을 기록하였다.

둘째, 이달은 평소에 독서량이 많았고 많은 글을 지었으며, 한리 학관이 되었지만 이마저도 버렸다고 기록하였다.

셋째, 박순의 문하생으로서 고죽 최경창·옥봉 백광훈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어느날 박순의 충고를 듣고 5년동안 두문불출하며 치열하게 노력하여 당시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글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넷째, 이달은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고 성품도 호탕하고 예의를 잘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시를 좋아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했다고 기록하였다.

다섯째, 이달은 평생동안 떠돌아다니며 글만 썼으며, 삶은 곤궁했지만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고 기록하였다.

손곡산인전 전문

손곡산인(孫谷山人) 이달(李達)의 자는 익지(益之)이니, 쌍매당(雙梅堂) 이침(李詹)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가 미천한 기생이어서 세상에 쓰이

지 못했다. 원주의 손곡(孫谷)에 살면서 자신의 호(號)로 삼았다.

이달은 젊었을 때에 벌써 읽지 못한 글이 없었고, 지은 글도 매우 많았다. 한때 한리학관(漢吏學官)이 되었으나,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어서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고죽 최경창·옥봉 백광훈과 함께 노닐며, 몹시 기뻐하여 시사(詩社)를 맺었다.

그 무렵 그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본받아서 그 뻗속까지 터득했으므로 한번 붓을 들면 곧 몇 백 편을 지었는데, 모두 아름답고 넉넉해서 읊을만 했다. 하루는 사암(思庵) 박순(朴淳) 상공이 이달에게 이르기를,

“시의 도는 마땅히 당(唐)으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네. 소동파가 비록 호방(豪放)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류로 떨어진 것일세.”

하면서, 곧 책 시령 위에 꽃힌 이태백(李太白)의 악부(樂府)·가(歌)·음(吟) 등과, 왕유·맹호연의 근체시(近體詩)를 뽑아 보여주었다. 이달은 깜짝 놀라 시의 바른 법도가 여기에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앞서 배웠던 것들을 모두 내버리고, 옛날에 은거했던 손곡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선(文選)』과 『이태백집』, 성당(盛唐) 십이가(十家)의 글, 유우석·위응물 및 양백겸의 『당음(唐音)』등을 가져다가 엮으려서 외웠다. 밤을 낮 삼아 무릎을 자리에서 떼지 않기를 5년 동안이나 계속 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마치 무엇을 깨달은 듯 싶었다. 그래서 시를 지어 보았더니, 시어가 매우 맑고도 적절해서, 옛날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 버렸다. 곧 여러 시인들의 체를 본받아서 장단편(長短篇)과 율시·절구 등을 지었다.

그는 시를 지을 때에 말 한마디까지도 갈았으며 글자 하나까지도 닦았다. 또한 소리와 율까지도 알맞게 같고 닦았다. 법도에 알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달이 가고 해가 가더라도 고치기를 계속했다. 이

렇게 해서 열댓 편이 지어지면 그제야 여러 시인들 앞에다 내어놓고 읊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기이하다고 감탄하였고, 최고죽과 백옥봉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제봉(霽峯, 고경명의 호) · 하곡(荷谷, 허봉의 호)같이 시를 잘 짓는다고 일세에 이름이 난 대가들도 그를 성당(盛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의 시는 맑고도 새로웠으며, 아담하고도 고왔다. 그 가운데 높이 이른 시는 왕유 · 맹호연 · 고적(高適) · 잠삼(岑參) 등의 경지에 드나들면서, 유우석 · 전기(錢起)의 풍운을 잃지 않았다. 신라 · 고려 때로부터 당나라의 시를 배운 이들이 모두 그를 따르지 못했다. 이는 참으로 사암 상공이 고무시켜 준 힘 때문이었으니, 마치 진섭(陳涉)이 한나라 고제(高帝)의 길을 열어준 것과 같았다.

이달의 이름은 이로부터 우리나라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귀중하게 여겼지만, 그 사람은 버리고 쓰지 않았다. 끝까지 그를 칭찬한 이들은 오직 문단의 대가들 서넛 뿐이었고, 속인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여러 차례 그를 더럽히고 모욕하며 형망(刑網)에 얹어맸으나, 끝내 그를 죽여서 그 이름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이달의 얼굴이 단아하지 못했는데 성격이 또한 호탕하여 절제하지 않았고, 게다가 세속의 예법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입었다. 그는 고금의 모든 일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 하기 즐겼으며, 술을 사랑하였다. 글씨는 진체(晉體)에 능하였다.

그의 마음은 가운데가 텅 비어서 아무런 한계가 없었으며,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몸 붙일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망에 버렁뱅이 노릇을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

리하여 가난과 곤약 속에서 늙었으니, 이는 참으로 그의 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몸은 곤궁했지만 그의 시는 썩지 않을 것이다. 어찌 한 때의 부귀로써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으랴.

그가 지은 글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기에, 내가 모아서 네 권으로 엮어 뒷세상에 전하러 한다. 외사씨(外史氏)는 이렇게 평했다.

“태사 주지번(朱之蕃)이 앞서 이달의 시를 읽다가, 「만랑무가(漫浪舞歌)」에 이르러서는 무릎을 치며, ‘이 작품이야말로 이태백에게 견준다 하더라도 어찌 뒤떨어지겠는가?’ 라고 감탄하였다. 석주 권필은 그가 지은 「반죽원(斑竹怨)」을 보고, ‘이것을 『청련집(靑蓮集)』 가운데 넣는다면, 아무리 안목이 높은 자라도 쉽게 가려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두 사람이 어찌 망령된 말을 하였겠는가?

아 아! 이달의 시는 정말 기이하다.

- 허균 『성소부부고』권 8 「손곡산인전, 허경진 역 -

이외에도 허균은 자신이 문과에 급제하기 이전에 지었던 시들을 모아서 『교산억기시(蛟山憶記詩)』라는 문집을 만들었다. 이 문집 마지막 부분에 그의 스승 이달을 생각하여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손곡은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시만 읊었는데
백편이 모두 무르녹게 아름다워 유장경에 가까워졌네
요즘 사람들은 겉만 보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하지만
만고에 흐르는 강물을 어찌 그치게 할 수 있으랴

蓀谷砦 詩到白頭 百篇禮麗近隨州
今人肉眼雖嗤點 豈廢江河萬古流

• 이달의 시를 후세에 알린 손곡집(蓀谷集)

허균이 남긴 스승 이달에 관한 여러 기록 중에서, 『손곡집(蓀谷集)』이야말로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힐 것이다. 만약에 허균의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이달의 글들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허균은 반역자로 몰려 죽던 1618년 3월에 손곡집을 엮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예우를 다한 것이다. 그 덕분에 손곡 이달의 이름은 죽어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이다.

허균은 처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시 200여편을 모아서 4권으로 손곡집을 엮었다. 그 뒤에 홍유경과 이재영의 도움으로 130여 편을 보태어 6권으로 편찬하였다. 현재 전하는 손곡집은 6권 1책에 369편의 시가 실려있다.

허균은 손곡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상략 -

같은 시대에 손곡옹(蓀谷翁)이라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호음(湖陰)에게 두보(杜甫)와 소동파(蘇東坡)를 배웠는데, 그가 읊은 시가 이미 홍진(鴻鵠)하고 순숙(純熟)하였다. 그러나 최경창, 백광훈과 사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땀이 흘러, 그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 손곡집

배웠다. 그의 시는 본래 공봉(供奉) 이백(李白)에 근원을 두고 우승(右丞) 왕유(王維)와 수주(隨州) 유장경(劉長卿)에 드나들어 기운은 따뜻하고 지취(志趣)는 빼어났으며, 빛이 곱고 말은 맑았다. 곱기는 남위(南威)와 서자(西子)가 고운 옷을 입고 밝게 단장한 것 같고, 부드러움은 봄별이 온갖 풀에 내려 비치는 것 같았다.

서리처럼 찬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내리는 것같이 맑았으며, 높은 하늘에서 학을 타고 피리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것 같이 밝게 울렸다. 당기면 노을빛 비단이 바람에 일렁이듯, 펼치면 옥빛 자리에 옥구슬이 구르듯, 쨍그랑하고 소리나게 몰아치면 비파가 슬피 울고 구슬이 울리듯, 놀라서 잡으면 천리마(千里馬)가 멈춰 서고 용이 웅크리듯, 일없는 때에 천천히 걸음은 평탄한 물결이 넘실넘실 천리 바다로 흘러가듯, 태산의 구름이 바위에 부딪쳐 흰 옷도 되고 푸른 개도 되었다. 개원(開元)·대력(大曆) 사이에 두더라도 왕유(王維)와 잠삼(岑參)의 반열에서 조금도 기울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러 이름난 시인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래져 90리는 물러설 것이다.

옹은 신분이 미천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지은 시 천여 편이 모두 흩어지고 남은 게 없었다. 내가 소년시절부터 작은형님의 명으로 옹에게 시를 배워 마침내 향할 길을 알게 되었다. 그가 죽게 되자 그가 남겨놓은 글이 없어져 전하지 않을 것을 안타깝게 여겨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을 모으니 시가 200여 수 되어 판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사(上舍) 홍유형(洪有卿)의 집에서 130수를 더 얻어 이재영(李再榮)군에게 합하여 종류별로 편집하게 했더니 6권이 되었다.

옹의 시는 우리나라 여러 이름난 시인들을 뛰어넘으니, 어찌 나의 하찮은 글이 있어야만 오래 전하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남겨진

시를 주워모아 천년 뒤에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니, 부처님 머리를 더럽힌다는 꾸지람인들 어찌 피하겠는가. 위아래 수백년에 걸쳐 여러 노대가를 평정(評定)하여 옹에게까지 이른 것은 분수에 넘쳐 이 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오래되면 논의는 정해질 것이다. 어찌 한사람의 지언(知言)이 없으랴. 마침내 이 글을 써서 머리말로 삼는다. 옹의 성은 이(李)요, 이름은 달(達)이며, 자는 익지(益之)이다.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의 서예손(庶裔孫)이니, 손곡(孫谷)은 그의 자호이다.

만력 무오년(1618년) 3월에 양천(陽川) 허단보씨(許端甫氏)는 서(序)한다.

(허균, 『손곡집』, 허경진 역)

● 이달이 꿈꿨던 세상, 홍길동전(洪吉童傳)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홍길동전은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각인된 고소설이다.

손곡 이달과 허균과 홍길동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홍길동전 속에는 당시의 신분제도와 시대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건설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 있다. 혹시 홍길동전 속에 드러나 있는 허균의 개혁적인 사상이, 그의 스승 이달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사회개혁과 유토피아를 꿈꾸던 허균의 사상은, 스승인 이달에게서 전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 자신의 천한 신

분에 대한 한계와 자신이 꿈꾸는 사회에 대한 동경이, 제자인 허균을 통해 홍길동전으로 태어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허균은 능력있는 주인공이 적서차별이라는 불합리한 사회제도로 인하여 겪는 불행한 현실을 홍길동전이라는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백성들의 눈과 마음으로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소설 속에 담아놓았다. 이를 통하여 모순된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잘못된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허균은 평소에 자신의 스승 이달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달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서얼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진출이 막혀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또한 사제지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스승 이달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다. 허균의 시대를 뛰어넘는 개혁적인 성품은, 스승의 불행한 개인사와 결부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회개혁의 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이 아닐까.

어떤 이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허균의 스승인 이달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현실 속의 손곡 이달과 소설 속의 주인공 홍길동은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가족사가 어찌면 그렇게도 똑같은 수가 있단 말인가.

손곡 이달이 꿈꿨던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홍길동전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4. 장안의 종이값을 올린 광한루시회(廣寒樓詩會)

때는 1578년(선조 11년) 봄이었다.

남원 광한루에서 유명한 시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시회가 열렸다. 이 시회를 주관한 사람은 당시에 남원부사로 재임 중이던 손여성(孫汝誠)이다.

광한루는 조선시대 유명한 재상 황희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었으며, 처음에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1444년(세종 26년)에 정인지가 건물이 전설 속의 달나라 궁전인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닮았다고 하여 광한루(廣寒樓)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후 1582년(선조 15년)에는 정철이 건물 앞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를 가로질러 오작교(烏鵲橋)라는 반월형 교각의 다리를 놓았다.

지금의 건물은 1597년 정유재란 때에 불탄 것을, 1626년(인조 4년)에 다시 지었다고 한다. 광한루는 보물 제281호이다.

광한루시회는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열리게 되었다.

광한루시회는 백호(白湖) 임제(林梯)가 과거에 급제하고 남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임제는 나주(羅州) 사람인데 시를 잘 썼다. 1577년 9월 알성시(謁聖試)에 합격하여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영광스런 소식을 알렸다.

임제는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와 서울로 가던 중에 남원부사인





손여성에게 들었던 것이다. 이때 남원에는 손곡 이달과 옥봉 백광훈이 식객으로 머물고 있었다. 또한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백진남(白振南)은 이때 나이가 15세였다.

손여성은 임제의 방문을 받고 며칠 머물도록 하였다. 그리고 송별연을 겸하여 광한루에서 성대한 시회를 열었다.

손여성은 시회에 또 한사람을 초청하였다. 남원 인근에 살고있던 송암(松巖) 양대박(梁大樸)이다. 양대박은 백의제술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양대박은 임제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관계로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고 백광훈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처럼 광한루 시회는 우연한 기회에 이름난 시인들이 서로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 광한루 정면 입구 모습



이때 광한루시회에
참석했던 시인
들은 모두 당풍의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들이
다. 이달과 백광훈
은 삼당시인들이었

고, 임제와 양대박도 당풍으로 이름난 시인이었다.

광한루시회에 참석한 시인들이 주고받은 시들은 곧바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이 책 이름이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이다. ‘용성(龍城)’은 남원의 옛이름인데, ‘용성에서 시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시들을 묶은 책’이라는 뜻일 것이다.

광한루시회가 널리 알려지면서 용성창수집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시인들이 당시대의 걸출한 시인들이었으므로 너도나도 베껴가기를 청하였다. 그 바람에 장안의 종이 값이 올라갈 정도였다고 한다.

광한루시회와 용성창수집이 만들어진 경위는, 양경우(梁慶遇)가 쓴 『제호시화(濟湖詩話)』에 기록되어 전한다. 양경우는 광한루 시회에 초청되었던 양대박(梁大樸)의 아들이다.

임제가 처음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절도공(임제의 부친)이 제주목사로 계셨는데, 임제가 직접 바다를 건너가 찾아 뵈었다. 돌아올 때 바다를 거쳐 용성(龍城, 지금의 남원)에 이르렀다. 임제가 서울을 향해 출발하려 하자, 부사 손여성이 주변의 문인들을 불러모아 광한루 위에서 시회를 열어 전송하였다. 그 자리에는, 옥봉·손곡·백호 그리고 선친(양대박)께서 함께 계셨는데 성대한 모임이었다. 그분들이



■ 광한루 내부 모습

서로 주고받은 시들을 모아 일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이 서울에서 유행하여 마침내 종이가 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광한루시회와 관련한 일화들은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와 홍만중이 지은 『소화시평(小華時評)』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 또한 이때 지었던 글들은, 백광훈의 『옥봉시집(玉峯詩集)』, 임제의 『백호집(白湖集)』, 이달의 『손곡집(孫谷集)』 등에 일부가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특히 임제의 문집 『백호일고(白湖逸稿)』에는 기문(記文) 1편과 시 29수가 실려있다. 이 책의 기문은 임제가 쓴 것이다. 임제의 기문을 보면, 광한루시회가 이뤄진 배경을 알 수 있다.

대방(對方, 남원의 옛이름)은 오랜 고을이니 누관(樓觀)이 호남에서 으뜸이다. 내가 탐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손명부(孫明府, 손여성 남원부사)를 관아로 찾아가서 뵈었는데, 때마침 옥봉 백광훈과 손곡 이달 익지가 나그네로 노닐며 그곳에 있었다. 인사를 나눈 뒤에 곧 자리를 광한루로 옮겼다. 송암 양대박 사진을 서촌에서 초청해 오니 사미이난(四美二難,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모두 갖춰졌다는 뜻)이 기약한 적도 없이 모이게 된 것이다. 시를 읊다가 술을 마시는 진솔한 모임이 되었다. 며칠을 머물며 놀다가 아쉽게 작별하였다. 온 누각의 맑은 취미는 모두 시편에 담겨있다. 옥봉의 아들 진남(振男)은 그 부친의 기풍이 깊어 있었다. 지금 그가 지은 절구도 또한 기록 속에 들어있는데, 아매(阿買, 당나라 문장가 한유의 어릴적 이름임)에 견주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벽산(碧山) 임자순(林子順)은 쓰다. (국역손곡집, 허경진 역주)

위 기문내용은 광한루시회가 이뤄진 배경을 자세히 적고 있다. 또한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백진남

은 열다섯 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백광훈을 닮아서 시를 잘 지었던 것 같다.

광한루시회에 모인 시인들은 한구씩 돌아가며 이어짓기도 하였고, 운자(韻字)를 정하여 각자 따로 짓기도 하였다. 또는 다른 시의 운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들도 있다.

우선 네 명의 시인들이 각각 한 구씩 이어 지은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놀이 하다 보니 별세계에 온 듯 싶고(송암, 양대박의 호)

열두 난간 위에서는 달만 절로 환하구나(동리, 이달의 또다른 호)

구천에서 학을 타고 피리불며 오시는지(벽산, 임제의 호)

밤이 깊어 멀리서 허공 밟는 소릴 듣네(촌노, 손여성의 호)

仙遊擬入化人城(松巖) 十二欄干月自明(東里)

應有九天笙鶴下(碧山) 夜深遙聽步虛聲(村老)

위 시의 첫번째 기구(起句)는 송암 양대박이 지었다. 두번째 승구(承句)는 이달이 지었으며, 세번째 전구(轉句)는 임제가 지었다. 마지막 네번째 결구(結句)는 광한루 시회를 주선한 손여성이 지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떠들썩하게 술잔을 돌리며 시를 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회를 마칠 때는 이미 술이 기분 좋게 취한 상태였다. 시회를 모두 마치고 돌아갈 무렵에 양대박이 갑자기 재미있는 행동을 했다.

“우리 네사람이 여기 오른 뒤에 누가 감히 다시 이곳에 오르겠는가?”

양대박이 기분 좋게
취한 모습으로 광한루
의 사다리를 떼어내며
소리쳤다. 함께 어울
렸던 다른 시인들도
박수를 치며 동조했으
리라.

그만큼 광한루시회
에 참석했던 시인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풍류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 광한루 천정 대들보에 붙어있는 각종 글들

훗날에 봉래 양사언이 광한루시회 소식을 들었고, 참
석한 시인들이 지은 용성창수집을 읽어보았다. 양사언
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진 않았지만, 시와 풍류를 좋
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을 것이다. 용성창수집을 보고 흥이 나서 그 느낌을
시로 지었다.

천리 먼 곳 서로 만나 한바탕 웃을 때에
푸른산 빛 짙어지고 흰머리는 실 같아라
흰 깃 위에 꽃이 피니 중요 · 왕희지 필적이요
해와 달이 빛을 내니 이백 · 두보 시로구나

千里相逢一笑時 碧山堪黑白頭絲
霜縑花發鍾王筆 日光懸李杜詩



위 시에서 보듯이 양사언의 칭찬이 참으로 대단하다. 광한루시회에서 지은 글들은 모두가 이백과 두보의 시와 같고 흰종이에 써 내려간 붓글씨 또한 중요와 왕희지에 버금간다는 칭찬을 쏟아놓고 있다.

한편 광한루시회에서 지었던 시와 자세한 평은 후대의 연구자들이 논문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용성창수집에 수록된 각각의 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시 두 편은 같은 운으로 쓴 백광훈과 이달의 시이다.

■ 시인들이 시회를 열었던 광한루 모습



풀빛 짙은 긴 다리에 해가 지려 하는 때에
 삼삼오오 탄 말에는 비단 수실 푸르구나
 강남땅 풍물들이 지금 이리 한창인데
 묻노니, 그대 와서 몇 수 시를 지었는가

草色長橋落日時 三三遊騎絡青絲
 江南風物今如此 爲問君來幾首詩

옥봉 백광훈의 시이다. 주변 풍광들이 푸릇푸릇 생동하는 한창 때에, 좋은 사람들과 만난 자리가 견잡을 수 없이 흥겹다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시로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흥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남국의 봄나들이 삼월 맞아 한창인데
 산꽃들은 비단 같고 버들가진 실같구나
 우연히 만났어도 모두 십년지기인 듯
 웃어 보네, 병든 나만 좋은 시를 못 짓기에

南國春遊三月時 山花如錦柳如絲
 相逢盡是十年舊 自笑病夫無好詩

손곡 이달의 시이다. 이달은 이미 천안에서도 몸이 아파 손여성에게 신세를 진 바 있다. 손여성이 남원으로 임지를 옮기자 함께 따라와서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중이었다. 이날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오랫동안 사귀 친구들 같은 흥겨운 분위기이다. 하지만 병든 자신을 생각하면 상심이 큰 듯하다.

이외에도 용성창수집 시첩 속에 소개되어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산빛은 질푸르고 해마저도 지려는데
다락 위엔 이별의 정 어지럽기 실날 같네
내일 아침 전주 향해 한 번 길을 나서면은
필마 타고 멀어진 채 홀로 시를 읊겠구나

遠山蒼翠日沈時 樓上離情亂若絲
明朝一向全城路 匹馬迢迢獨詠詩

백진남의 시이다. 옥봉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광한루에 함께 있다가 마침 시회가 열리므로 영광스런 자리에 어울 수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 이별하고 혼자 남아 시를 읊겠다는 이별의 아쉬움이 담겨있다.

남녘고을 벼슬살이 낙화 시절 만났는데
남은 살쩍 시름 붙어 태반이 실 같구나
동남에서 손님 와서 한바탕 봄 잔치에
향그런 풀 맑은 시내 새 시 흥이 절로 나오

宦遊南國落花時 殘髮粘秋太半絲
東南賓客一春會 芳草清溪還可詩

광한루 시회를 주관한 손여성의 시이다. 벼슬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가운 손님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즐겁겠는가. 반가운 손님들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흥겨움을 표현하였다.

서로 만나 어울린 곳 봄바람도 좋은 때에
천만 가닥 실버들은 강다락을 쓸고 있네
헛된 세상 영킨 맘엔 술마신 게 제일 좋고
한평생의 이런 풍광 시 없을 수 없겠구료

相逢之處春風時 柳拂江樓千萬絲
浮世亂懷宜把酒 百年文物可無詩

양대박의 시이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처럼 즐거운 자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처럼 좋은 시간에는 술이 제일이고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호방한 기운이 넘치는 글이다.

옛 고을서 서로 만나 봄마저 저문 때에
성 밖 강가 꽃잎 지고 아지랑이 잦아드네
붉은 다락 저녁 햇살 마주친 잔 넘치는데
이 풍광을 그려내니 새롭게 시가 되네

古國相逢春暮時 江郊花落靜遊絲
洪樓晚照杯樽濫 模寫風光更有詩

임제의 시이다. 늦은 봄날 황혼녘에 술잔을 부딪치며 어울리는 모습을 그려내니 모두 시가 된다는 흥겨운 글이다.

한편 광한루시회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호평을 받는

시는 당시의 정감을 잘 나타낸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알려졌다. 이 시들은 가(歌)를 운자로 썼는데, ‘파(波) · 사(斜) · 다(多) · 화(花) · 가(歌)’로 쓰여진 칠언율시(七言律詩)이다.

칠언율시 4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포에는 산들바람 저녁물결 일어나고
 맑은 내 긴 긴 버들은 푸름 띤 채 하늘하늘
 산이 나눈 선부에는 다락 자리 좋을시고
 길이 드는 너른 벌엔 들빛이 짙었구나
 천리 밖서 서울 꿈을 다시금 꾸다 보니
 이 한 봄 고향 꽃을 속절없이 저버렸네
 맑은 술에 작별 사연 새로 지은 시에 남아
 이별가 몇 곱보다 오히려 더 낫구려

南浦微風生晚波 清煙低柳碧斜斜
 山分仙府樓居好 路入平蕪野色多
 千里更成京國夢 一春空負故園花
 清樽話別新篇在 却勝驪驅數曲歌

임제의 시이다.

시에 등장하는 남포는 광한루 앞의 요천을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이 요천에 배가 다닐 정도로 수량이 넉넉했다고 한다. 요천에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물결이 살랑살랑 일고 저녁 이내(해질 무렵에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가 살짝 어린 긴 버들은 푸른 색깔로 짙어가면서 바람결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다. 지리산이 영호남을 나누고 있고 그 사이에 신선의 공간으로 차지한 남원땅이 위치한다. 그 가운데

에서도 이 광한루는 온갖 풍광을 다 모아놓은 곳에 위치해 있다. 내다보이는 앞쪽의 너른 들판에는 봄빛이 찬란하다.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시의 인상을 그림처럼 살려내었다.

비가 온 뒤 맑은 시내 잔물결이 퍼져가고
수양버들 휘늘어져 물가 독에 빗기었네
남쪽거리에 한 동이 술 마음껏 취해보세
동풍 부는 삼월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별 정자 곳곳마다 왕손초가 파릇하고
골목길 집집마다 탕자꽃이 하얗구나
하늘가에 유랑하는 길손된지 오래라서
한밤중의 남도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清溪雨後起微波 楊柳陰陰水岸斜
南陌一尊須盡醉 同風三月已無多
離亭處處王孫艸 門巷家家枳殼花
流落天涯爲客久 不堪中夜聽吳歌

이달의 시이다.

봄날의 정겨운 광경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흥취를 잘 살리고 있다. 여기서는 남원이 남쪽지방이기에 오가(吳歌)라고 했으며, 남도의 애절한 육자배기 소리와 같은 것으로 나그네의 심사를 아프게 한다는 노래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밤이 주는 고독감에 슬픈 소리 가락이 더해져 향수를 감당 못하게 한다. 감정의 고조를 극대화한 기법이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은 정서를 함축시키지 못하고 설명적인 표현이 되어 나그네의 괴로운 심사를

문면에 그대로 드러내어 버렸다.

그림 난간 저편 호반 푸른 마름 물결치고
이별의 정 끝없는 채 해마저도 기우누나
방초 자란 나그네 길 어느 때나 끝이 나며
푸른 산의 흰구름은 어드메서 피어날까
쪽배 타고 꿈결 속에 큰 바다를 건넜는데
늦봄의 풍광 속에 대궐 꽃은 만발하리
술동이는 쉬이 비고 사람 쉬 흠어지니
원망인 듯 노리인 듯 들새도 우짖구나

畫欄西畔綠蘋波 無限離情日欲斜
芳草幾時行路盡 青山何處白雲多
孤舟夢裏滄溟事 三月烟中上苑花
樽酒易傾人易散 野禽如怨又如歌

위 시는 백광훈의 시이다.

광한루와 저물녘을 이별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어 쓸쓸하면서도 아쉬운 정감을 유도하고 있다. 광한루의 화려한 단청빛과 호반에 일렁대는 마름의 푸른 색채를 대비시켜 봄날의 청신한 경치를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물어가는 황혼을 배경으로 깔아 이별의 슬픈 정감이 저절로 느껴지도록 정서를 흥기시켰다.

오작교 다리계선 봄 물결이 출렁대고
광한루 다락 밖엔 실버들이 살랑대네
좋은 경친 천고토록 이 명승에 남아 있어

시와 술 한 마당에 흥겨움에 거나해라
 전별 자리 어느 누가 방초를 원망하랴
 말굽 아래 밝힌 꽃잎 가면서 볼 터이니
 하늘 끝의 오감이라 시름이 짜이는 듯
 멋대로 말을 읊어 호연가를 가름하네

烏鵲橋頭春水波 廣寒樓外柳絲斜
 風煙千古勝區在 詩酒一場歡意多
 誰向離筵怨芳草 行看歸騎踏殘花
 天涯去住愁如織 強把狂言替浩歌

양대박의 시이다.

봄날에 느끼는 허무감과 이별의 아쉬움을 술과 시로 풀어내는 호



방향이 엇보인다. 오작교와 광한루를 대구로 처리하여 봄날의 청신함을 실감나게 제시하였다. 서로 만나 노니는 이 광한루에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때라서 오작교 아래 못에서는 물결이 살랑 일어나고 광한루 곁에 서있는 버드나무는 실같은 천만 가닥의 가지를 드리운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광은 옛날부터 이름난 이곳 남원의 광한루가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런 공간에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한마당을 이루니 함께 짓는 시와 주고받는 술이 흥겨움을 도도하게 한다.

* 위 광한루 시회와 관련한 시의 번역과 해설은, 김종서(金鍾西) 교수의 논문 「광한루 시회(廣寒樓詩會)와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에서 옮겨왔음. 또한 칠언율시 4편의 시평들은 같은 논문에서 일부분을 편집하여 옮겨온 것임.

■ 오작교 모습



5. 이달의 가족사(家族史)와 시세계

● 이달의 가족사

손곡 이달의 가족사를 알만한 자료는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옛 자료의 기록은 부정 이수함과 관기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내용 정도이다.

이달이 장성한 후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남긴 시 속에서 가족사를 추측해보는 정도이다.

이달이 남긴 시를 보면 부인과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달이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처자를 돌보지 않았으므로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달의 ‘저녁이 되기도 전에(不少)’라는 시 속에는 부인과 딸이 등장한다. 아마도 이 시를 쓸 때는 어느 궁벽진 두메산골에 살았던 것 같다. 시의 배경이 호랑이와 표범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산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는 이달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겨울날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가족들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잠깐씩 머물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을까.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는 두메산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不夕

호랑이 표범 막느라 걱정 많아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사립을 닫는다네
창 열고 밤 사이 내린 눈 보고
들창으로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네
어린 딸은 찬 샘물을 길어오고
가난한 아내는 콩죽을 맛보네
떠돌아다닌 지 오래라고 탄식 말거나
머무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

不夕柴荊掩 多虞虎豹防
拓窓看夜雪 自牖納朝陽
稚女寒泉汲 貧妻豆粥嘗
幕嗟流落久 寓地卽爲鄉

또한 그의 시 ‘선산 가는 길에[善山道中]’라는 시에는 “몇 식구(數口)가 서울에 있지만 살림이 군색하다”고 했다. 또한 ‘여러 달(數月)’이라는 시에서는 “온 집이 서울에 붙어 있으니 밥이 없어 어려움을 탄식할 테지”라고 했다. ‘기성에서 박생에게 지어주다[箕城 贈朴生]’에는 “집이 서울에 있다”고 했다. 이로 미뤄보아서 어느 시기인가 처자들이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산 가는 길에 善山道中

서풍이 불어오니 잎새마다 마른 소리
먼 길이 아득해 말안장도 지겹네
몇 식구 서울에 있어 먹을 게 군색한데

이 한 몸 병이 많아 나그네 노릇 어렵네
 강가 다리 건너는 기러기 찬 서리에 가까운데
 동산 풍에 반디 날고 흰 이슬 차갑네
 홀로 시낭(詩囊)에 기대어 긴 밤 다 보내고
 갈 길을 헤아리려 아이 불러 물었네

西風吹葉聲乾 長路愁愁厭馬鞍
 數口在京家食窘 一身多病旅遊難
 河橋雁度清霜近 園草螢飛白露寒
 獨倚詩囊謠夜盡 計程呼設小童頑

여러 달 數月

여러 달 동안 남쪽 나라에 노닐다 보니
 새로 친 서리가 살짝 끝에 가득하네
 온 집이 서울에 붙어 있으니
 밥이 없어 어려움을 탄식할 테지
 긴 칼을 통긴들 무엇이 보태지랴
 음부경 옆에 두고 보지를 앓네
 오직 썰렁한 마음만 남아 있어
 길게 휘파람 불며 난간에 기대었네

數月遊南國 新霜滿鬢端
 全家寄京洛 無食嘆艱難
 長鋏彈何益 陰符置不看
 唯餘寥落意 長嘯倚欄干

기성에서 박생에게 지어주다 箕城 贈朴生

낙양의 젊은이 가생같이
한번 웃고 서로 만나 소원함을 보이지 않았네
협객과 노닐며 삼척검 들지 말고
선비를 좋아해 오거서를 읽게나
나그네로 관외에 떠돌아 다닌 지 오래인데
집은 서울에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네
이 늙은이 어디에 머무는 지 찾으려거든
대동강 동쪽 발두둑에서 나무꾼 고기잡이에게 물으시게나

洛陽年少賈生如 一笑相逢未見疏
遊俠莫提三尺劍 好儒必讀五車書
客來關外流離久 家在秦中喪亂餘
若訪老夫何處住 大江東畔問樵漁

이외에도 이달의 시 중에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도 한 편 전한다. 허균이 1593년에 지은 학산초답에 실려있는 시이므로, 추측하건대 아내는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이달의 나이 50대 전후였을 것 같다.

이달이 오랜 방랑 중에 옛집을 찾아왔지만, 아내가 살아생전에 사용하던 화장대와 거울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있을 뿐이다. 봄을 맞이하여 뜨락에 핀 붉은 복사꽃이 먼지만 쌓인 빈 방과 대비되어, 그 쓸쓸함이 더욱 진하게 전해온다.

이달의 제자 허균은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정을 끈다고 평했다. 이 시구 중에는 옛사람의 말을 빌어다 쓴 것도 있는데, 그만 시가 너무 아름답고 정을 끌기에 그런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다 悼亡

화장대엔 거미줄, 거울엔 먼지
문 닫힌 뜨락 복사꽃, 봄 더욱 쓸쓸해라
작은 다락 옛 그대로 달빛 속에 있건만
주름 걷는 이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粧奩蟲網鏡生塵 門掩桃花寂寞春
依舊小樓明月在 不知誰是捲簾人

또 다른 이달의 시에는 이달의 막내딸이 등장한다. 이달이 이거용에게 보낸 시에서는 집안에 피붙이라고는 막내딸 한 명이 있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딸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의 주인공 이거용(李巨容, 1568~1619)은 무장현감, 성천부사,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사포 이거용에게 써 보이다 錄示李使君巨容

젊은 시절에 한번 헤어진 뒤로
조그만 소식조차 여지껏 막혔네
중간에 난리를 만났기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네
몸을 피해 관우(關右)로 오니
그 누구와 평생을 이야기 하라
바위에 기대어 겨우 초가집 짓고
산을 파서 때 맞춰 기장 심었네
내 비록 산골짜기에 산다 하지만

먼 길 나그네와 어찌 다르랴
끓주리고 목마른 길 늘 걱정하니
살림 군색하기가 이와 같다오
집안에는 친척 하나 없고
피붙이래야 막내딸 하나
해읍(海邑)을 다스리는 그대 만나니
맑은 여름 시작되는 철이구려
연못에는 연잎이 물 밖으로 나오고
단청한 처마에는 제비가 지저귀네
슬프고 기쁜 이야기들을 웃음 섞어 하다보니
한번 술자리에 여러 잔을 들었네
늙고 보니 절로 기쁨이 없고
가난과 시름은 가닥도 많아
지금까지 답답하던 나의 회포를
높으신 그대 앞에 다 풀어 놓으리다
떠돌아 다니다가 돌아와 의지하니
이 몸 맡길 곳 있음을 알게 되었네
사귄 정이 처음과 끝 한결 같아서
나를 위해 호젓한 곳에 농막 두었네
돌아가고픈 마음에 바로 옮기니
하직 인사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급해
다시 와서 또 말씀드리려고
필마로 이곳을 떠나간다오

少年一爲別 微音尊間阻
 中間遭亂離 死生不知處
 竄身內關右 與誰平生敘
 依巖僅結茅 鑿山時種黍
 雖居峽谷間 何異遠行旅
 所憂在飢渴 生理遽如許
 室中無所親 骨肉誰季女
 逢君宰海邑 時候啓清暑
 華池荷出水 畫簷燕新語
 悲歎雜談諢 一酌觴屢舉
 老夫自無綜 窮愁固多緒
 從前鬱鬱懷 盡向尊前紓
 流離得歸依 託身知有所
 交情克終始 爲我置幽墅
 歸心正還次 別語太恩遽
 重來更有言 匹馬從此去

● 이달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이달의 시 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많다. 그는 시 속에서 그의 고향이 홍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다. 그가 시 속에서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고향은 어릴 적에 뛰어놀던 홍주였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들 때는, 고향을 그리며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곤 했다.

나그네 시름 客懷

이 몸이 어찌 다시 동서를 따지랴
뿌리 뽑힌 쑥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네
한 집 살던 친지들 모두 다 흩어진 뒤에
타향에서 새해를 난리 중에 맞이하네
돌아가는 기러기는 천봉 눈 위로 그림자 지고
스러지는 호각 소리는 새벽바람을 타고 날리는데
성문 바깥 길은 물길 구름속 서글퍼서
꽃다운 풀 볼수록 고향생각 끝없어라

此身那復計西東 到處悠悠逐轉蓬
同舍故人流落後 異鄉新歲亂離中
歸鴻影度千峯雪 殘角聲飛五夜風
惆悵水雲關外路 漸看芳草思無窮

밤중에 앉아 생각하다 夜坐有懷

평안도로 돌아다닌 지 오래 되었건만
올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네
나그네 잠자리엔 걱정 근심만 밀려와서
꿈속에도 고향산에 가보지를 못했네
세상이 전쟁 속에 어지러워
나의 생애를 길바닥에서 보내고 있노라니
한줄기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밤마다 지친 내 얼굴을 비춰줄 뿐이네

流落關西久 今春且未還
有愁來客枕 無夢到鄉山

時事干戈裏 生涯道路間

殷勤一窓月 夜夜照衰顏

새벽에 판교촌을 가며 曉行板橋村

물길 막힌 서쪽 길에 닭 우는 소리 들리고
고개 마루에 달이 저 새벽안개 풀어지네
사람소리 이따금 초가 주막에서 들리고
판교에 말발굽 소리 잇달아 나는구나
아득하던 고향이 차츰 가까워져 기쁘네
긴 여행 끝에 여독이 몰려드네
다시 큰 언덕을 내려가 벗들에게 말하려고
날이 밝으면 모름지기 먼저 떠나야겠소

水關西路聽鷄鳴 嶺月初沈曉霧平

人響間聞茅店語 馬蹄連上板橋聲

悠悠漸喜鄉山近 玚玚偏知旅態生

更下長坡說徒侶 天明順趁及先行

단천에서 중앙절을 맞으며 端川九日

삭풍 불어 모랫가에 느릅나무 다 떨어지고
강가 관문에는 길이 비탈졌네
나그네 길에 중앙절 맞아
말 위에서 노란 국화를 꺾어보네
낮선 곳 떠도느라 일정한 거처 없어
좋은 날 맞으면 고향집 더욱 생각나네
외로운 변성을 아득히 바라보니
구슬픈 호드기 소리에 성의 나무들 감추어지네

朔吹沙榆落 河關驛路斜
客中逢九日 上馬折黃花
飄梗無常處 良辰倍憶家
謠謠望孤戍 城樹憶悲茄

패강을 건너며 재송정에 쓰다 *渡涇江 題裁松亭

객사에는 아침 내내 비가 내리고
호숫가 밭에는 밀이 익어가네
까닭없이 나그네 된 처지라
저절로 먼데 사람 시름이 이네
뜨락에 짙은 그늘이 지고
시장 바닥에 떠드는 소리 듣다보니
어느날에나 고향으로 돌아갈는지
내 집은 바다 서쪽 마을에 있다오

客舍終朝雨 湖田小麥秋
無端爲客處 自起遠人愁
庭院重陰合 闔廬市語收
何時返鄉曲 家在海西州

* 패강은 대동강의 옛이름이다. 평양에서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재송정이 있다. 손님을 전송하는 곳이다.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 詠柳家孤雁

자새(紫塞)에 북방 서리 무섭게 쳐도
남천(南天)에는 따뜻한 기운이 통했지
물과 구름 밖을 외롭게 날다가

잘못하여 그만 그물에 걸렸네
 남의 뜻에 따라 마시고 쪼며
 갈 길 막혔음을 한탄하며 사네
 포구 모래밭 달빛 아래 잠들고
 내 긴 물가에서 갈 숲에 놀았겠지
 떼 지어 날아 먼 바다를 건너고
 줄 이어 먼 바람에 울었겠지
 사냥꾼 화살을 길게 시름하다
 겨우 막요의 활만 피했구나
 성품도 다스리면 이와 같으니
 태어날 때부터 본디 공평한 것 아니라네
 무리를 생각하는 게 너 홀로 인색했으니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라
 미물에 있어서도 비록 모습 다르지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겠지
 어느날에야 여섯 나래를 길러
 구름 하늘 향하여 잘 날아 가려나

*紫塞胡霜重 南天暖氣通
 孤飛水雲外 誤墮罽羅中
 飲啄隨人意 棲遲恨路窮
 浦沙眠夜月 煙渚戲蘆叢
 接翅翻遙海 聯行叫遠風
 長愁戈者矢 徒避莫徭弓
 繕性能如此 生身本不公
 念群渠獨嗇 無患爾何豐

在物雖形異 懷鄉與我同

何當養六翮 好去向雲空

* 만리장성을 뜻한다. 주변의 흙이 자줏빛이기 때문이다. 기러기들이 여기서 여름을 난다.

이화정에서 낙봉의 시에 차운하다 梨花亭 次駱峯韻

나그네 길이라 봄놀이 가지 못함을 탄식하니
가득한 나무 짙은 그늘 푸른 빛으로 다락 에웠네
꽃 피던 시절이 이미 지나 손에 넣을 수 없지만
즐기던 마음은 아직 남아 자주 고개를 돌리네
높은 곳 오르면 늘 고향 생각 나고
멀리 보면 서울 떠난 시름이 다시금 더해지니
번잡한 마음속 다 쏟아낼 계책도 있건만
시골 술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 부끄럽네

客行嗟未及春遊 滿樹濃陰翠擁樓

花事已空難入手 賞心猶左屢回頭

登高每結懷鄉念 望遠還添去國愁

瀉盡煩襟知有計 欲沽村酒愧無由

연스님의 시축에 지어주다 題衍上人軸

동호에 노를 멈추고 잠시 흐르노라니
물언덕 비탈 위로 버들 늘어져 있네
병든 나그네의 외로운 배는 밝은 달빛 속에 있고
늙은 스님의 그윽한 절간엔 떨어지는 꽃잎이 많구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득히 향그런 풀밭에 이어지지만

고향길은 멀고도 멀어 물결 저 너머에 있네
 홀로 앉아 구름 바다 저 멀리 갈 길을 생각하노라니
 해질 무렵 갈까마귀 울음소리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東湖停棹暫經過 楊柳悠悠水岸斜
 病客孤舟明月在 老僧沈院落火多
 歸心黯黯連芳草 鄉路迢迢隔遠波
 獨坐計程雲海外 不堪西日聽啼鴉

성천에서 쓰다 成川題詠

봄그늘 막막하고 눈이 추적추적 내리니
 먼 곳 나그네 시름 많아 홀로 사립을 닫네
 해를 이은 전쟁에 정해진 계획 없고
 한 몸 떠돌아다니니 다시 무엇을 의지하라
 강 다리에 해 지니 다니는 사람 적고
 들판 나무는 연기에 잠겨 떠나는 새 드므네
 멀리 고향 뒷산을 바라보니 애간장 끊어질 듯
 눈물이 옷 적신 것도 알지 못했네

春陰漠漠雪霏霏 遠客愁多獨掩扉
 連歲甲兵無定計 一身漂泊更何依
 江橋日落行人少 野樹煙沈鳥去稀
 遙望故園腸欲斷 不知流淚已添衣

새재를 넘다가 두견 울음을 듣고서 過鳥嶺 聞杜鵑有感

고개는 아득한데다 물소리까지 슬프기만 해서
 나그네 남쪽으로 가려니 말 걸음도 느리기만 하네

집 떠나 참으로 내 고향 그리웠으니
 골짜기 들어와 두견 울음을 차마 들을 수 있으랴
 어느 산에서 구름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달까지 질 무렵 두견 소리 더욱 괴로워라
 두보가 끝없이 가슴 아프던 시절
 배주에 이르러 특별히 시를 지었었지

隴坂溫溫隴水悲 旅人南去馬行遲
 辭家正欲懷吾土 入峽那堪聽子規
 千嶂不分雲起處 數聲猶苦月沈時
 杜陵無限傷心事 直到涪州別有詩

● 이달의 시 속에 나타난 고향 홍주

손곡 이달은 언제쯤 고향 홍주를 떠났을까?
 이달이 홍주를 떠나서도 가끔씩 고향부근을 들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고향을 떠난 시기를 밝힐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연구자들의 발표 자료들을 살펴보면, 1558년부터 그의 발자취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558년에 평안도 관찰사인 유강(兪綱)의 연회석에 참석하여
 시재(詩才)를 인정받고 오랫동안 평양에 머문 듯하다

(허경진, 『국역손곡집』, 부록 3, '손곡 이달의 생애')

이달의 태어난 해를 1539년으로 추정해볼 때, 1558년에 평양에 머물던 시기는, 그의 나이가 2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달이 고향 홍주를 떠난 나이는 최소한도 20세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로 강릉·영광·천안·남원·서울·평양·황해도 등 전국 곳곳을 떠돌아다닌 흔적들이 그의 시 속에 나타난다.

또한 그의 시 속에서 고향이 홍주라는 사실과 홍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을 법하지만 전하는 것이 없다.

이달의 시가 기록으로 남아 전해오는 것은, 그의 제자 허균을 만난 이후의 글들이다. 허균을 만나기 전에도 많은 시를 썼을 테지만, 기록으로 남아 전하지 않고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허균을 만나기 전에 쓴 시들 중에는 고향 홍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정해볼 뿐이다.

다만 이달이 임진왜란을 홍양성(옛 홍주의 또다른 이름)에서 겪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예전 만남을 그리워하며 정랑 신설에게 지어주다(憶昔行贈申正郎澣)’라는 시 한편이 전하고 있다. 시 속에 표현된 ‘홍양성(洪陽城)’은 지금의 홍성 홍주읍성이다. 또한 홍주 목사를 지냈던 이수광은, 이달을 왜란시절에 홍양에서 만났다는 기록을 남겼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달이 전쟁 중에 어는 시기는 홍주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이달의 나이는 5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였을 것이다.

특히 이수광은 이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둘 사이에 남다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수광은 이달과 사제지간인 허균의 손윗동서이다. 홍주목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손아래 동서인 허균의 스승 이달을 각별한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다.

■ 홍양성(현 홍성 홍주읍성) 전경









■ 홍양성 내 홍주목사가 집무하던 옛 동헌건물 모습

예전 만남을 그리워하며 정랑 신설에게 지어주다

憶昔行贈申正郎渫

난리가 처음 나던 날을 생각하니

이 내 몸은 홍양성에 있었지

성 둘레 수 백 호 인가에

닭과 개들도 또한 편치 못했지

그대는 바로 젊은 시절이라



가을 하늘 정기처럼 기운 상쾌했었지
 청동에서 군호 소리 들리고
 의병을 모집하자 병사들이 모였지
 병사들의 식량 마련 쉽지 않아
 비분강개하며 눈물이 갓끈을 적셨지
 힘은 작아도 뜻은 굳었건만
 시절이 위태로워 일을 이루지 못했지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
 조야에 곡소리가 들렸지
 종묘사직이 불타 버렸으니
 뒷골목 백성들이야 물어 무엇하랴
 도적의 숫자를 알 수가 없어
 불에 탄 두 서울만 남았으니
 들과 언덕에는 피가 흐르고
 길에는 시체가 종횡으로 덮였지

- 이하줄임 -

憶昔亂離初 身在洪陽城
 城邊數百家 鷄犬亦不寧
 夫君正年少 氣爽金天精
 清東作軍號 募義來聚兵
 兵糧未易辦 慷慨淚沾纓
 力徵志猶堅 時危事不成
 于時屬遑遑 朝野聞哭聲
 焚燒及宗社 況問閭里氓
 寇賊不知數 灰燼餘雨京
 郊原血漂流 道路屍縱橫

(이하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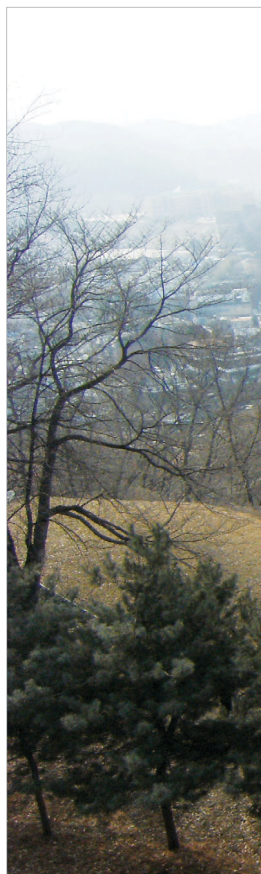
위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달이 임진왜란 시절의 어느 한 시기는 홍주에서 머물렀거나, 아니면 외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홍주에 들렀던 것으로 보여진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백성들이 겪었던 처참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참으로 홍양성 주변이 왜적의 발굽에 얼마나 시달렸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한편 이달은 홍주와 가까운 정산, 공주, 부여 등을 떠돌면서 지었던 시가 있다. 이 시들 중에는 전쟁 중에 돌아다니며 지은 시도 있다. 아마도 임진왜란 중에는 홍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주에서 송정옥을 만나 公山 逢宋廷玉

왜구들의 난리가 몇 해나 되었건만
싸움이 아직도 한양에 가득하다니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잃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물을 수가 없구려
해질녘에 임 가신 곳 바라보다가
봄바람에 고향으로 마음 보낸다오
난리통에 그대 술을 받아 마시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실 것만 같구려

寇盜經年歲 兵戈滿漢陽
所親皆喪亂 不敢問存亡
西日瞻行殿 東風入故鄉
時危對君酌 涕淚慾沾裳





■ 공산성에서 바라본 공주시내 모습

금강에서 정자신과 헤어지다 錦江別鄭子慎

한 그루 팔배나무 앞

바람에 불려 뜰에 가득 떨어졌네

날이 밝으면 금강으로 떠나야겠기에

푸르른 저녁 산을 시름겹게 바라보네

一樹棠梨葉 風吹落滿庭

明朝錦江水 愁對暮山靑

부여를 지나다가 過夫餘有懷

성과 연못이 변해 큰 숲이 되고
궁궐 담장자리엔 고을이 들어섰네
산과 강이 온갖 전쟁 다 겪은 뒤에
울과 담만 몇 마을에 남아있구나
옛 언덕의 비석은 글자가 다 망가졌고
묵은 밭의 흙줄기는 맥이 풀렸네
성충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말 세워놓고 나 혼자 흐느끼네

■ 공주 공산성 금서루 모습



喬木城池變 官牆縣邑居
 山河百戰後 籬落幾村餘
 古岸碑文毀 荒田土脈疏
 成忠墓何在 駐馬獨歔歔

* 위 시에 나오는 성충은 백제 의자왕 때의 충신이다. 의자왕이 음란과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바른 소리를 하다가 옥에 갇혔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할 무렵에 임금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충신을 삼충신이라고 부른다. 성충과 홍수와 계백장군이다. 부여 부소산성의 삼충사에 세 명의 충신이 모셔져 있다.



■ 공산성 벽과 금강 모습





■ 삼충사 모습 (성충을 비롯한 3충신 사당)

부여 가는 길에 夫餘道中

거친 산등성이 아래에서 말을 쉬니
 어지러운 돌 사이로 시냇물 흐르네
 아침 매미가 역마을 숲에서 우니
 외로운 나그네 고향 생각 나네
 밝은 거울 속 흰머리를 슬퍼하고
 단사(丹砂)는 대환(大還)을 저버렸으니



■ 삼충사에 봉안된 성충 영정

가을바람에 해진 옷 입고
다시 목릉관을 나가네

歇馬荒岡下 溪行亂石間
早蟬鳴驛樹 孤客憶鄉山
白髮悲明鏡 丹砂負大還
西風幣裘在 更出穆陵官

백마강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白馬江懷古

백제의 흥망은 세월 벌써 아득해
먼 구름과 지는 햇볕 속엔 고기잡이와 나무꾼 뿐일세
산과 강의 그 패기는 모두 스러지고
시끌거리던 관청과 시장은 이미 적막해라
궁전에서 임금님이 거나했을 저녁인데
아래 강엔 비바람 속에 조수만 밀려드네

용이 백마를 탐내어 천년 한이 되었건만
저 물가의 풀과 꽃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百濟興亡歲月遙 斷雲殘照見漁樵
山河霸氣全消歇 朝市餘聲已寂寥
正殿君王驕醉夕 下江風雨滿歸潮
龍貪白馬千年恨 汀草汀花未解嘲

* 위 시는 부여 백마강의 조룡대 전설과 관련이 있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성 앞에 도착했지만 백마강을 건널 수 없었다. 강을 건너려고 배를 띄울 때마다 침몰해버렸기 때문이다. 소정방이 연유를 알아보았더니 커다란 용 한마리가 백마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소정방은 용이 백마의 고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물 위로 솟아오른 바위에서 백마의 고기를 미끼 삼아 용을 잡았다. 용을 잡았으므로 강물이 잠잠해지자 소정방은 백제성을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후 소정방이 앉아서 낚시를 했던 바위는 조룡대(釣龍臺)로 부르게 되었고 강이름도 백마강(白馬江)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부여 부소산성 정문







■ 백마강 고란사 나루터 모습

불을 얻다 乞火

백마강 나룻가에 나루터 아전이 살아
이영으로 지붕 엮고 강 모퉁이에 숨어 지내네



■ 백마강 조룡대 모습



■ 백마강과 유람선 모습

길가던 사람이 불 얻으려고 고기잡이 집을 두드려도
대 울타리에 눈 쌓인 채로 문도 열어보지 않네

白馬津邊津吏住 縛茅編屋隱江隈
行人乞火扣漁戶 雪壓竹籬門不開

가림에서 안생과 헤어지다

嘉林 別安生

산이 가까워 저녁 그늘 짙게 깔렸는데
날이 저물자 가을 기운 더욱 서글퍼라
내일 아침 백제땅 가는 길에 오르면
뒤돌아보며 그리워하겠지

山近夕陰重 日西秋氣悲

明朝百濟路 回首是相思

■ 백제 때 쌓은 가림산성
(부여군 임천면 소재, 현재는 성흥산성으로 부름)





정산동헌 定山東軒

들판의 물을 담장구멍으로 들게 하니
주인의 깊은 뜻이 남아있네
저절로 물이 흘러 가득 차오면
다시금 고요 속의 시끄러움을 사랑하네
고즈넉한 옛마루 아래
맑은 소리가 가을 대나무 뿌리에 내리니
맑은밤 물소리 듣느라 잠 못 이루어
어두운 번뇌 씻어냄을 다시 깨닫네

野水入牆竇 主人深意存
自能流處滿 還愛靜中喧
寂寂古軒下 冷冷秋竹根
清宵聽不寐 更覺滌昏煩

* 정산은 홍성군과 바로 인접한 청양군에 있는 고을이다.

아마도 정산을 거쳐서 공주로 가던 길에 지었던 시가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송남수(宋相壽, 1537~1627)가 1587년에 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관아가 좁으므로 정원을 넓히고 담밭을 뚫어 시냇물을 끌어들었다. 정산현은 칠갑산 계곡에서 사시사철 맑은물이 흘러내린다. 정산현 관아 앞으로 흐르는 계곡물을 끌어들인 것이다.

관아 안에는 조그만 못을 만들고 그 위에다 정자를 세워 만향정(晩香亭)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시를 읊으며 노닐었다. 송남수가 조성한 연못은 청양군 정산면사무소 앞에 그대로 있으며, 최근에 그 자리에 만향정을 복원하였다.





● 가난, 방랑, 외로움, 이별을 노래한 시

이달의 시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고절(孤絶)의 정감(情感)이 바탕을 이루며, 객수(客愁)와 별리(別離)로 구체화되는 정서(情緒)가 압도적이다”고 평한다.

이달의 전 생애가 떠돌이의 고달픈 삶으로 일관했으므로, 현실세계의 고달픔과 방랑생활 중에 겪는 시름, 이별, 외로움 등이 시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정말로 이달의 시를 읽다 보면, 방랑생활의 외로움과 이별과 가난을 한탄하는 시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곳에 머물러 살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특히 이달은 오랜 방랑생활로 인하여 몸에 병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시에 ‘몸에 병이 들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예장과 헤어지며 別李禮長

오동 꽃잎은 밤안개 속으로 떨어지고
바닷가 나무는 봄구름에 없어졌네
풀밭에서 한 잔 술로 헤어지지만
서울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겠지

桐花夜烟落 海樹春雲空
芳草一盃別 相逢京洛中

객사 다락에 올라 登驛樓

가을 하늘엔 한 조각 달
한밤중에 시름이 이네
강남에 외로운 나그네 있으니
객사 다락엔 비치지 마소

一片秋天月 中宵生遠愁
江南有孤客 休照驛邊樓

나그네 되어 노닐다 旅遊

떠나도 시름은 다하기 어렵고
머물러도 계획은 이미 어긋났네
삼경에도 나그네는 잠이 없는데
개 한 마리가 사립에서 짖네
지는 달은 빈 행랑채를 넘겨다보고
찬바람은 해진 휘장을 흔들어대네
내일 아침 강 길을 내려갈 적에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깊이 감사해야지

行役愁難盡 淹留計已違
三更無客夢 一犬吠柴扉
落月窺虛廡 寒風動幣幃
明朝下江路 深謝主人歸

영월 가는 길 寧月道中

시름 품고서 나그네 멀리 다니다보니
천 봉우리에 길이 험난하구나

봄바람에 들려오는 두견 울음 괴롭고
 서녘 해에 노룽은 차갑구나
 고을은 산성과 이어지고
 나루 정자는 물가를 눌러 섰는데
 타향에도 또한 봄빛이라
 어느 곳에서 만단 시름을 다스려 볼거나

懷緒客行遠 千峰道路難
 東風蜀魄苦 西日*魯陵寒
 郡邑連山郭 津亭壓水闌
 他鄉亦春色 何處整憂端

* 위 시에서 노룽은 단종(端宗, 1441~1457)의 능을 말한다. 단종은 12세에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인 수양대군에 왕위를 빼앗기다시피 넘겨주었다. 단종은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1457년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1457년 9월에는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었다. 그해 10월에 단종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영월에는 단종의 능과 청령포 등의 유적지가 있다.

한편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위 시와 관련한 일화가 실려 있다. 이달이 최경창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월에 놀러갔을 때에, ‘노산묘(魯山墓)’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되었다. 이달이 먼저 “東風蜀魄苦 西日魯陵寒”라는 한 구절을 지어 보였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붓을 내려놓고 감히 쓰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 그 전편을 보니 오직 이 글귀만이 아름답다고 평했다.







■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 모습 (청령포는 동서남북이 물과 산으로 막힌 육지 속의 섬이다)

숙주 가는 길에서 肅州道中

말에 채찍질하며 차가운 강물 건너
 걷고 또 걸어 높은 언덕에 올랐네
 가을 풍광이 벼 심은 들판에 가득하고
 건너편 산마을엔 다듬이 소리
 바람 탄 까치가 숲의 앞을 떨구고
 이슬에 젖은 반디는 풀속에서도 밝은데
 오늘 밤에도 역로에 달 비치니
 어느 곳에서 홀로 혼을 녹이라

策馬渡寒水 行行登古源
 秋光遍野稼 砧響隔山村
 風鵲墜村葉 露螢明草根
 今宵驛路月 何處獨銷魂



수재 심대형과 헤어지며 別沈秀才大亨

땅을 피해 서해까지 왔다가
가족을 데리고 또다시 북으로 가네
험하고 어렵기는 옛날 같은데
떠돌아 다니다가 올해에 이르렀네
나그네 되어 끼니 잇지 못함을 슬퍼하고
아침마다 안위를 알 수 없네
사람들 향해 많이 몸 굽히곤
말 타고도 다시 머뭇거리네
가는 길에 꽃잎은 나무에 흩날리고
헤어지는 정자의 버들은 안개에 흔들려

■ 영월 단종의 능



그대 보내는 시름 끊어질 듯 아프니
 그대도 나같이 한이 끊이지 않네
 우연히 난리통에 쫓겨 다니며
 산수 주변에 몸을 내맡겼건만
 골짜기 샘은 멀어서 물 길기 힘들었고
 산길도 따라 올라오기 힘들었네
 다북쑥 엮은 집은 손질하지 못했고
 차조 심은 밭도 묵어만 가네
 때마침 강 너머 일 말았다니
 소식이나 전해주면 다행이겠소

避地來西海 携家又北還
 艱難如舊日 漂泊到今年
 旅食嗟無繼 安危旦未然
 向人多跼蹐 乘馬更迍邐
 去路花飛樹 離亭柳拂煙
 送君愁絕劇 同我恨纏綿
 偶逐干戈際 投栖水石邊
 峽泉勞遠汲 山逕苦循緣
 未補編蓬屋 田荒鍾枕田
 時因過江使 消息幸相傳

무장현 가는 길에 茂長道中

유월이라 장사의 길로
 찌는 더위 속을 가네
 외로운 마을에서 저녁 비 만나
 혼자 앓았노라니 꺾꼬리 소리 들리네

세상에 살며 오래 나그네 되어
 지나온 햇수가 이미 반생일세
 언제쯤이나 대숲 아래
 사립문 닫고 머물러 살려나

六月長沙路 歸仁觸暑行
 孤村逢暮雨 獨坐聽流鶯
 在世長爲客 行年已半生
 何時竹林下 棲息掩柴荆

근상인에게 고마워하다 謝勤上人

두메산골 새 집에 늙은 농부로 살며
 논밭에서 공들인 것을 거두고 남기 원치 않네
 온갖 계책으로 살아보려 해도 상책이 없어
 자주 시 지어 근심 없애려 글을 쓴다오
 맑은 가을 숲속에서 약 먹고 거닐며
 비온 뒤 시내 못가에서 고기 낚는 것을 보니
 오직 시골 스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으시네

新家峽裏老農居 田圃收功不願餘
 百計謀生無上策 數詩排悶有中書
 秋晴林逕時行藥 雨後溪潭見釣魚
 惟有野僧知我意 近來棲息問何如

6. 이달의 제2의 고향, 원주 손곡리

● 이달이 한동안 살았던 손곡리(蓀谷里)

이달은 그의 호를 손곡(蓀谷)으로 썼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는, 그가 한동안 살았던 곳이며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손곡리 마을 입구에는 손곡 이달시비와 함께 손곡시비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손곡시비가 서있는 위치는, 손곡 1리 별말 마을이다. 지방도가 지나가는 길옆에 서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위치이다. 또한 이 마을은 옛날에 임경업 장군이 태어났다

■ 손곡시비 모습(손곡 1리 소재)





■ 임경업 장군 추모비 모습

고 한다. 손곡시비 바로 옆에 임경업 장군 추모비도 함께 서 있다.

마을 중심가 길옆에는 창고를 개조한 예술극단 건물도 서 있다. 예술극단 건물 이름이 ‘이달의 꿈’이다. 마을의 작은 가게이름도 이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달 수퍼’이다. 이런 모습들로 미뤄볼 때, 이곳 마을은 이달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손곡시비 쉼터 모습(손곡1리 소재)



■ 옛 손곡초등학교 모습

손곡 시비 쉼터를 지나
고 마을 안쪽으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며
100여 미터 쯤 올라가면,
1999년에 폐교된 손곡초
등학교가 있다. 옛 초등학
교 건물은 지금 현재 ‘손
곡 녹색농촌체험 수련관’
으로 사용되고 있다.



■ 손곡1리 중심가 모습

손곡초등학교에서 500여 미터 쯤 직진하여 올라가면 손곡저수지가 있다. 이 저수지는 주변 마을에 농업용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아래 마을은 손곡 1리이며, 저수지 위 쪽으로는 손곡 2리가 이어진다.

손곡저수지 입구 솔숲에는 작은 솔숲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솔숲 공원에는 손곡 이달의 시 다섯 편이 여러 모양의 바위 표면에 새겨져 있다.

■ 예술극장 이달의 꿈



고죽의 산장을 찾아와서

여러 달 만나지 못했기에
 오늘 기쁘게 찾아왔네.
 농가는 나무 아래 있고
 오이 덩굴이 가을 숲에 걸려 있네.
 주인은 참으로 탈없이 지낸다며
 가난을 마음에 꺼리지 않네.
 즐거운 낫빛으로 뜨락 풀 위에 앉아
 나를 위해 거문고를 뜯어주네.
 거문고 다하면 다시 헤어져야 하니
 슬픔만 서러움만 가슴에 가득해라.

尋崔孤竹坡山庄

累月抱癸曠，	及此喜相尋
田廬樹木下，	瓜蔓懸秋林。
主人固無恙，	貧蔓不纓心。
怡然坐庭草，	爲我奏鳴琴。
琴盡卽還別，	恨恨恨彌襟。



■ 김시습의 초상화에다



■ 벗과 헤어지며



■ 허균에게



■ 산수화에다









■ 손곡저수지에서 내려다본 손곡1리 모습



이상의 모습들이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에서 살았던
손곡 이달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이달이 손곡에
살았던 시기는 언제쯤일
까?

하지만 이달이 손곡에
살았던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허균의 손곡산인전에 봉은사 시절의 얘기를 근거
삼아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손곡산인전에는 1579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 봉은사에서 삼당
시인들이 시사를 맺고 자주 어울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이달은
박순으로부터,

“시의 도는 마땅히 당(唐)으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네. 소동파가
비록 호방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류로 떨어진 것일세.”

라는 가르침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을 받았다.

이달은 깜짝 놀라서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옛날
에 은거했던 손곡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손곡으로 되돌아가서 5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당시(唐詩)를 익혔고, 이후 이달의 시가 더욱 원
숙해지고 돋보였다. 이때부터는 삼당시인이었던 최경창과 백광훈
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했을 정도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면, 1579년을 전후 하여 그 이전에
손곡에서 한동안 은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엔가



■ 손곡저수지 위쪽으로 형성된 손곡2리 입구 모습

손곡에서 나와 삼당시인들과 봉은사 주변에서 한동안 어울렸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손곡으로 들어가서 당시(唐詩) 공부에 전념하며 5년 여동안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의 시에도 한동안 살았던 손곡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길을 가다 손곡의 옛집을 생각하며 고죽에게 지어보이다

路中憶蓀谷莊示孤竹

집 가까이 푸른 시내에는 외나무로 다리를 놓았지

다리 끝의 버드나무는 여린 가지가 간들거렸지

양지쪽에는 햇볕 따뜻이 들어 남은 눈도 녹았겠네

아마도 잔디 트랙엔 약초 싹이 자라고 있겠지

家近青溪獨木橋 橋邊楊柳弄輕條

陽坡日暖消殘雪 料得莎階長藥苗

이달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손곡은, 행정구역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恭讓王)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유배되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공양왕의 한자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恭)’은 공손하다는 뜻이고, ‘양(讓)’은 넘겨주다는 뜻이다. 즉 왕위를 공손하게 넘겨준 왕이라는 의미가 된다.

처음에는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유배당하여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여 ‘손위실(遜位室)’이라고 불렀다. 그후로 중간에 ‘위’가 탈락하고, ‘실(室)’이 ‘곡(谷)’으로 바뀌면서 ‘손곡’이 되었다고 한다.



■ 손위실 마을 표석

하지만 이 경우에 손곡은 한자가 서로 다르다. 이달이 사용하던 호는 손곡(蓀谷)이다. 손(蓀)은 창포를 뜻하는 풀을 말한다. 왕위를 겸손하게 양보했다는 ‘손(遜)’과는 의미상의 차이가 많다.

그렇다면 이달이 살았다는 ‘손곡(蓀谷)’의 지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달의 시를 연구한 허경진 교수는 그의 논문 (『국역손곡집』, 부록 3 ‘이달의 생애’)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었다.

마을 이름 ‘손곡’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부들골’이다. 부들골이란 동네 이름은 ‘부들골’에서 나왔다. 부들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한자로 쓰면 바로 ‘손곡(蓀谷)’이다. 부론면 손곡리에서 선산김씨가 많은 사는 오리를 아래에 부들골이 있는데, 손곡리라는 마을 이름도 바로 이 골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달은 이 골짜기에 들어와 살면서, 자신의 호를 손곡(蓀谷)’이라고 정했던 것이다.

이달이 살았던 부론면은 조선시대 주변지역 교통과 물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다.

손곡을 비롯한 부론면 일대는 남한강과 접하고 있으며,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을 보관하던 흥원창(興原倉)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원주 일대의 물산들이 흥원창에 보관되었다가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운반되었다. 자연스럽게 서울 등지의 외지인들이 주변에 많이 드나들었다.

손곡리가 속한 ‘부론면(富論面)’의 지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들이 풍성하다 보니 언론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말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부론(部論)’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지명유래가 전한다.

이달은 손곡(孫谷)이라는 호 이외에도 ‘서담(西潭)’이라는 호도 사용하였다. 서담(西潭)이라는 호 역시 그가 한동안 살았던 지명이다.

서담은 손곡이라는 호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미뤄보아서 이달은 손곡보다는 서담에서 먼저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달이 한때 호로 썼던 서담(西潭)은 여주 신륵사가 있는 부근 마을로 추측하고 있다. 이달의 시 중에는 신륵사, 여강, 서담 등이 등장한다. 이 시에서 자신의 집이 구름과 물 사이에 있는 서담이라고 했다.

신륵사에 쓰다 題巖寺

여강에 삼월이 되자 외로운 배 타고 돌아왔네
내 집은 서담(西潭) 구름과 물 사이에 있네
마름 물가에 안개가 일고 새는 나무에 깃드는데
꽃이 석대에 피자 스님은 문을 닫는구나

驪江三月孤舟還 家在西潭雲水間

煙生蘋渚鳥投樹 花發石臺僧掩關

옛날에는 남한강이 흘러가는 여주 구간을 ‘여강(驪江)’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옛사람들은 남한강이라는 이름보다는 여강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한다.

서울에서 뱃길로 내려오면 여주와 원주는 바로 이어진다. 두 지역은 뱃길로 손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육로로는 원주 손곡리와 여주 신록사는 30킬로미터 정도 거리이다.





남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봉미산(鳳尾山)
의 남쪽 기슭에 천년
고찰 신륵사(神勒寺)가
있다. 신륵사에 서있
으면 남한강이 바로
발 아래로 흘러간다.



■ 신륵사 앞으로 흐르는 남한강 모습

일반적으로 사찰은 산속 깊숙이 묻혀있지만, 신륵사는 특이하게
도 강가에 서있다. 신륵사 경내에는 벽돌로 만든 전탑이 서있어서,
고려시대부터 벽절이라고도 불렀다.

■ 신륵사 전탑 모습



밤에 여강을 가는 감회 夜行驪江感懷

서풍에 칼 쪼고 서니 관로는 먼데
말없이 홀로 가며 모래 다리를 지나네
외로운 성의 피리 소리 강가 고을에 끊어지고
깊은 밤 찬서리만 물가 마을에 가득하네
술집에서 병든 사마는 예부터 피로해
약낭(藥囊)을 원인의 처방으로 새로 지었네
흐릿한 달아래 다릿가 돌은
당시 제북에서 나던 자황이 아닐는지

杖劍西風關路長 獨行無語過沙梁
孤城斷角鳴江郡 深夜寒霜滿水鄉
酒肆舊勞司馬疾 藥囊新撰越人方
依佈月下橋邊石 莫是當年濟北黃

그 자리에서 卽事

여강 나루터에서 아전과 함께 배 타고
삼월 연기와 꽃 속에 급류를 내려가네
한평생 예전부터 서로 안 것 아니지만
인간세상의 이별이 모두 시름이라오

驪江津吏具行舟 三月煙花下急流
不是平生舊相識 人間離別總關愁



■ 남한강에 유유히 떠다니는 황포돛대 모습

남한강은 한양으로 오르내리던 중요한 뱃길이었다. 신륵사 앞으로 흐르는 여강에도 유명한 나루터가 있었다. 이달도 나루터에서 여강 뱃길을 따라 원주와 한양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황포돛배가 옛날 모습을 재현하며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 이달은 어떤 인연으로 손곡리(蓀谷里)에 살았을까?

이달은 어떤 인연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손곡리에서 한동안 등지를 틀고 살았을까?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다. 다만, 이달의 제자가 허균과 허난설헌 남매였고, 이달과 허봉이 친구였으므로, 허씨 집안과 연계시켜보는 시각이 있다.

이달의 시를 연구한 허경진 교수는 그의 논문 (『국역손곡집』, 부록 3 '이달의 생애')에서, 이달이 손곡에 살게 된 연유를 허씨 집안과 선산김씨 집안과 연계시켜서 추론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달의 제자인 허균과 이달의 친구인 허봉, 그리고 허균·허봉 형제의 아버지인 허엽은 원주의 대성(大姓)인 선산김씨와 관련이 깊다.

당시에 동인의 영수는 허균·허봉 형제의 아버지인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과 김효원인데, 이들은 서울 건천동 한 마을에 살아 동인(東人)이라고 불렸다. 동인의 대표 김효원은 허봉과 친구사이다.

허씨 집안과 선산김씨 집안은 겹사돈을 맺은 사이다. 김효원의 아들 김극건은 허봉의 사위가 되고, 허봉의 아우 허균은 김효원의

사위가 되었다. 이들이 껍사돈을 맺기 직전에 이달이 손곡으로 들어갔다.

선산김씨는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선조들이 사패지로 받은 대구 모의 전답을 손곡리 일원에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허봉이 자신의 가난한 친구 이달을 김효원에 소개하여 손곡에 거처를 마련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허균이 김효원의 사위가 되면서 손곡리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듯하다. 그 증거로는 허균이 어머니의 무덤을 양천 허씨 선산에 모시지 않고 원주 법천에 모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허균은 온 나라 안을 떠돌던 스승 이달이 조용하게 들어앉아 시 공부할 곳을 찾자, 자신의 농장이 있던 부론면 손곡리의 집을 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국역손곡집(國譯 蓀谷集)』 이달 저, 허경진 역주
『성소부부고(惺所覆?藁)』, 허균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주
『지봉유설(芝峰類說)』, 이수광 저, 남만성 역주
『제호시화(霽湖詩話)』, 양경우 저, 이월영 역주
『송천필담(松泉筆談)』, 심재 저, 교감 역주
『소화시평(小華詩評)』, 홍만중 저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안대회,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손곡 이달 연구』, 허경진 엮음, 원주학술총서 제3권, 2006
『홍주문화』제18집, 홍주향토문화연구회, 2002
『홍성의 민담』, 홍성문화원, 1996
『손곡이달시선(蓀谷李達詩選)』, 허경진, 평민사, 1991
논문 「손곡 이달의 생애」, 허경진
논문 「광한루시회(廣寒樓詩會)와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 김종서

김정헌 | 편집자

편집자 김정헌은 홍성 출생이다. 1987년에 동화작가로 등단하여 20여 권의 동화집과 향토관련 책들을 펴내었다. 또한 홍성에 전해오는 전설을 수년 간 채록하여 지역신문에 발표해 왔다. 2010년에는 그동안 지면에 발표해온 전설들을 모아서 “삶과 상상력이 녹아있는 우리동네(총합편)”와 “남산과 보개산의 솔바람길 이야기”를 펴내었다. 2011년에는 “홍주성 천년을 말하다”와 “월산과 용봉산의 솔바람길 이야기”를 펴내었고, 2012년에는 “오서산과 석당산의 솔바람길 이야기”를, 2013년에는 “삼준산 주변의 솔바람길 이야기”를, 2014년에는 “홍성의 내포역사 인물길 이야기”를 펴내었다.

편집자 김정헌은 2002년에 충남문학대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는 홍성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홍주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한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지금 현재는 갈산초등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홍성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홍성이 낳은 비운의 방랑시인

손곡 이달 孫谷 李達

인쇄 / 2014년 12월

발행 / 2014년 12월

편저자 / 김정헌

감 수 / 허경진

발행처 / 홍성문화원

펴낸곳 / 대교출판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18(정동)

042-254-9966, 226-9966

042-255-5006

※ 이 책은 2014년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금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